

대전이 좋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재단이 엮어낸
그 여섯번째 이야기



대전이 좋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엮어낸
그 여섯번째 이야기





시장님의 편지

대전은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가정주부 · 학생 ·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41명의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발로 뛰며 취재한 대전의 숨은 매력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자단의 눈으로 보고 느낀 대전의 여행명소와 원도심 이야기, 이색체험 공간, 대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 ‘대전이 좋다’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책속에는 매력 넘치는 대전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 대전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슴에 샘물처럼 흘러들 것입니다. 대전 시민들에게는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게 해주고, 다른 지역 분들에게는 ‘대전가면 뭐해?’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것입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샘’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이 좋다’는 친절한 여행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을 대전의 역사 · 문화 속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대전이 좋다’와 함께 우리 대전에 놀러오세요. 삶이라는 이름의 여행 배낭에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을 가득 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12월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Contents



김지은	대전벚꽃명소 BEST 5 골라가는 재미 가득한 대전봄꽃여행	010
김지은	제25회 대전종합만화축제 디쿠페스티벌에 다녀오다	014
변영래	한밭수목원 동원을 거니는 설레는 마음	018
변영래	물 맑은 수통골 몸과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네	022
손미경	대전여행추천 야경시티투어!	026
손미경	장태산자연휴양림 스카이웨이	032
신영균	초가를 대청호호백리길 울트라 걷기대회에 다녀와서	036
이진아	보문산으로 도심 속 힐링투어를 떠나요	040
이창남	대전 주말 여행 보훈둘레길 걷기 어떠세요?	044
이창남	세종유성과학길을 아시는지요?	050
이창남	집에도 신분이 있어요! 동춘당, 한밭종각, 봉소루	054
임현철	대전자전거여행 갑천자전거길 탐방 엑스포다리 황홀한 노을	058
임현철	대전시티트레킹 도보로 즐기는 대전여행	062
임현철	로봇호기심천국 2016 로봇융합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066
이진아	대전국제와인페어 Free Wine Zone의 비밀이 궁금하십니까?	070
김지은	과학이랑 재밌게 놀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가다	074
정영옥	과학도시 대전과 만나다! ETRI와 지질박물관	078
강영숙	인기 만점! 오월드 사파리 투어	082



고혜정	대전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김관식 선생을 만나다	088
방성예	대덕특구 과학동네 사람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 장인순 박사	092
방성예	오카리나와 함께한 행복한 인생 여행	096
이경숙	대전시 공유와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 현장 공유 아이디어 봇물	100
이경숙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서구마을넷 세미나 현장을 가다	104
이광설	행방 묘연 대덕구 읍내동장승 25년 만에 찾은 사연	108
이광설	대전 정월대보름축제, 부수골 느티나무제	112
이시형	손으로 노는 노자들 손놀이 협동조합을 아세요?	116
전은영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수상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철수의 난>	118
주영선	대전시민이 함께 연주한 '대전의 찬가', 대전시청역 피아노계단	120
주영선	대전마을합창단의 즐거운 연습 현장을 찾아서	124
천상인	현악기 장인을 만나다, 마에스트로 구자홍 미니인터뷰	128



고혜정	원도심 문화미식기행 일곱 곳의 숨은 보물찾기	134
방성예	대전 사람이 간직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다, 월간토마토 북콘서트	138
손미경	지역주민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돕고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	142

이광섭	SBS 주말드라마 '그래, 그런거야'	146
	옛 충남도관사촌 촬영현장에 가다	
이창남	원도심 명물, 한밭복싱체육관 공은 올리고 세월은 다시 흐른다	150
주영선	미은오리 도자기 작업실과 가게1/2	154
한재권	대전 원도심에서 책을 만나다	156
홍준기	대흥동성당 종은 누가 칠까?	160
손미경	부산 원도심 여행	162
변영래	청라언덕에서 바라본 옛 대구의 모습, 대구 근대골목 투어를 가다	168



김기화	숨 가쁘다, 2016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현장!	174
손미경	대전 BRT 버스 직접 타 보니, 히트다, 히트!	178
신동일	소셜미디어기자단이 간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발표 현장	182
여인규	찾아가는 취업 상담 행복드림버스에 탑승해보세요!	186
이창남	생생 소통 현장 11번째 시민과 아침동행	190
김기화	대전 태평시장 태평청년맛길에 청년상인들이 떴다!	194
이진아	유천시장 청춘삼거리 청년식당 청춘이 꽃피다	198
주영선	세계 물의 날 맞아 돌아본 It's 水 생산과정	200



곽혜성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발명 꿈나무를 키워요	206
김기화	국립중앙과학관 근현대과학기술관 한국 최초의 기술을 한눈에	210
여인규	대전 당일치기 교통안전체험 여행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 맡기세요!	214
이경숙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에 가면 청소년 진로고민 걱정 뚫!	218
이진아	119시민체험센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배우자	222
임현철	생생한 법 체험 테마공원, 대전명소 솔로몬로파크	226
주영선	대전곤충생태관으로 가을 나들이	230
천상인	문화재가 아플 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골든타임을 지켜라!	234
한재권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록, 한국족보박물관	238
곽혜성	백석 시집 '시슴'과 같은 귀중도서와 만나다, 대전문학관 소장품 전	242
	페이스북으로 보는 소셜미디어기자단 move! move!	246
	소셜미디어기자단 introduction	250
	대전 구석구석 소셜미디어기자단이 간다!	252
	대전광역시 공식 블로그 방문자수 600만 돌파기념 이벤트 "대전은 000이다."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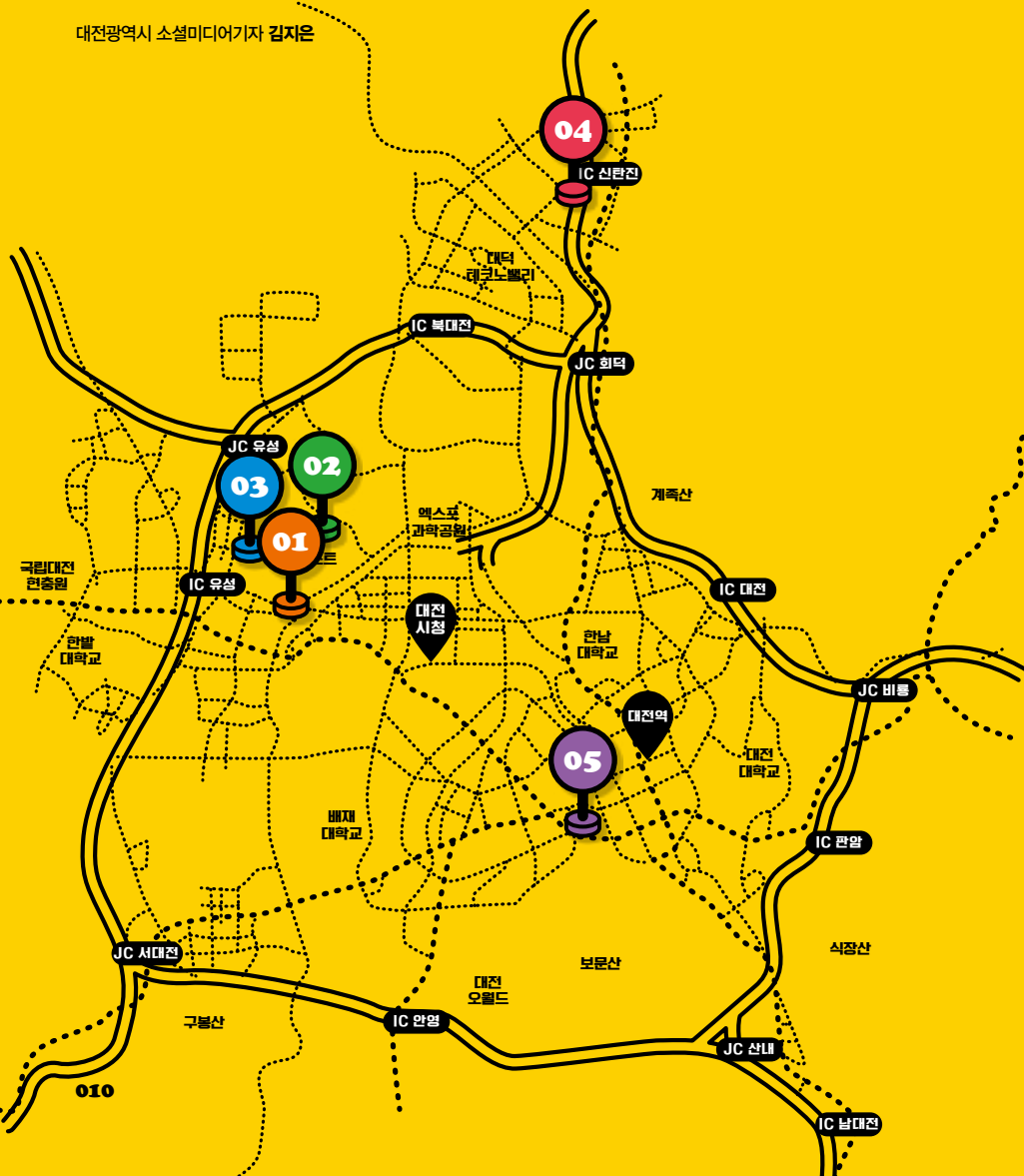


가볼래

— 대전 오감만족 —

대전벚꽃명소 BEST 5 골라가는 재미 가득한 대전봄꽃여행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김지은



봄, 봄에는 새싹이 돋고 노란색, 분홍색, 흰색 예쁜 꽃들이 피어나지요. 마음만큼 기분도 좋고 활동
자수도 상승하는 봄! 우리는 봄꽃 나들이를 가야 하나가요.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활
동하면서 대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작은 것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봄이
되면 다녀왔던 벚꽃 나들이 추천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살펴보고 벚꽃 나들이 다녀오세요. 미리 알
려드리는 팀이라고 할까요?

01 유림공원 벚꽃 대전 유성구 봉명동 2-1

대전 유림공원은 한밭수목원처럼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봄에는 꽃들이 시민을 맞아 주고, 가을에는 향기 가득 국화 향이 우리를 기쁘게 해
줍니다. 평소 유림공원을 자주 찾는 저는 걷기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해요. 공원 규

모도 제법 커서 주말에는 아빠와 공놀이 하는 아이들이나 돛자리 깔고 나들이
를 즐기는 가족, 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
은 대전의 센트럴파크라고 할까요?



노란 개나리와 분홍빛 벚꽃이 유림공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갑
천 변을 따라 걷다 보면 꽃나무에 둘러싸인 유림공원을 볼 수 있어
요. 봄이면 사진 찍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사진을 찍
었는데 활짝 피어있는 벚꽃 덕분에 꽃발(?)을 좀 받았어요.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대전의 쉼터지요. 포토존이기도 하고요. 매년
봄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유림공원의 벚꽃을 볼 수 있겠지요? 벌써 기대됩니다.

02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벚꽃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유림공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역시 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찾는 벚꽃 나들이 장소입니다. 유림공원에 갔다가 넘어가면 되요. 학교가 워낙에 크
다 보니 처음 가는 분은 입구를 잘 찾아야 합니다. 벚꽃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간 저는 입구를 못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버스만 잘 타면 바로 앞
에서 내려주는데 말이지요. 실제로 가보면 도로 따라 벚나무가 늘어서 있답니다. 반
대편에서 바라보면 더 예뻐요. 가까이 보면? 어떨까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꽃잎이 흩날리는 벚꽃길 따라 걸으며 낭만에 젖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캠퍼스의 낭만이란 자고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저도 걷고 싶네요. ‘둘이 걸어요~ 오예~’ 매년 4월 어느 멋진 날 ‘카이트 벚꽃축제’가 열리기도 하니 방문한다면 참고하세요.

03 충남대학교 벚꽃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유림공원 벚꽃과 카이트 벚꽃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충남대학교로 가봐야지요. 대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벚꽃 추천 장소, 충남대학교입니다. 중앙도서관을 넘어 길 따라 펼쳐진 벚꽃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나무가 크지는 않지만 아담해서 아기자기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잔디동산에서 돛자리 깔고 여유를 즐기기도 딱이에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유난히 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벚꽃이 활짝 필 때는 어디든 사람이 많지만요. 충남대학교 벚꽃길, 가보세요. 추천합니다.



04 신탄진 벚꽃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몇 년 전 일기엔 하지만 ‘대전에서 벚꽃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천받았던 장소가 신탄진이었어요. 대전 벚꽃 하면 유명한 곳이 많지만, 이곳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넓은 잔디광장에는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제법 큰 벚나무에는 흰 잎이 한 아름 걸려있어요. 가보면 충남대학교 벚나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랍니다. 벚꽃 터널에 온 느낌 이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게 된다면 소식 공유해주세요.

05 테미공원 벚꽃 대전 중구 보문로199번길 37-36

한 4년 전 4월 중순쯤이었을까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문득 창밖을 보았는데 눈에 들어온 풍경이 있었습니다. ‘저곳이 어딘가요?’, ‘저기는 테미공원이야.’ 그때 처음 테미공원이라는 곳을 알았는데 흔히 ‘꽃동산’이라고 하지요? 그날 보았던 테미공원 모습에 딱 어울릴 만한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벚꽃동산이었지요. 버스에



내려서 테미공원까지는 좀 걸어 올라가야 해요.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하고 있는 테미공원은 봄이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예쁜 곳입니다. 아담한 공원, 테미공원은 충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추천 대전벚꽃명소는 대전광역시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그동안 기자단이 다녀왔던 벚꽃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진 찍고 글을 쓰며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하나씩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몇 개의 기사를 소개할게요. 탄동천과 카이트 벚꽃을 소개합니다(김기화 기자), 화폐박물관 연분홍 벚꽃터널(고혜정 기자), 테미공원 벚꽃동산에 꽃비가 내리요(손미경 기자), 보문산 벚꽃길(손미경 기자), 싱그러움이 물씬! 갑천변&카이트 벚꽃길(천상인 기자) 등 봄에는 빗길 가득 대전을 아름답게 하는 벚꽃명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대전 벚꽃 추천지가 마음에 드셨나요? 봄이 오면 대전은 벚나무들이 벚꽃을 피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4월, 곳곳이 봄으로 가득할 거예요. 봄나들이 다녀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25회 대전종합만화축제 디쿠피스티벌에 다녀오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김지은



대전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과학의 도시, 와인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또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대전이 문화광역시가 되었으면 해요. 문화콘텐츠가 가득한 즐기고 볼거리 가득한 도시, 대전이요. 문화는 우리의 삶에 여유와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문화라는 개념은 다양하고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것 같아요. 음악, 춤, 노래 공연, 전시, 예술 등등 나열하기도 많네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주제는 '만화'입니다. 문화콘텐츠로서 만화와 대전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도 요술공주 셀리, 밍키, 미래소년 코난, 원피스, 세일러문, 아기공룡 둘리 등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만화를 즐겨 봅니다. 책이나 영상으로요. 만화는 누구에게나 추억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잖아요.

아는 분들은 알거예요. 대전에서는 대전종합만화축제 디쿠피스티벌이 열립니다. 제가 처음 디쿠피스티벌을 알게 된 게 8회니가 오래됐네요. 친구가 부스를 한다고 해서 구경 갔었는데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행사가 열리면 찾아가고는 합니다. 디쿠피스티벌은 매년 2월과 8월 두 번 열리는 대전의 또 다른 축제입니다. 2016년 2월에는 제25회 디쿠피스티벌(대전시민대학)이, 8월에는 제26회 디쿠피스티벌(대전무역전시관)이 열렸습니다. 행사가 열릴 때 장소가 바뀌기도 하니 방문한다면 미리 참고하세요.

2월 디쿠피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시민대학을 찾았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컨벤션센터, 대전예술가의 집에 이어 새로운 장소에서 행사가 개최됐네요. 대전시민대학은 대전시민에게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저는 지하철에 내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코스프레를 준비하는 사람, 부스 셀러, 관람객들이 눈에 보입니다. 늦게 온 것은 아니었는데 줄이 참 길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에요. 기다리는 중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만화행사라 만화와 관련된 전시와 차량을 볼 수 있었어요. 2월에 열린 디쿠피스티벌은 대전시민대학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라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했어요. 둘러보니 아마추어만화산업전, 무대관, 코스관, 만화차량전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디쿠펬스티벌은 2004년 2월, 제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만화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 참여,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적어도 1년에 계절 따라 적어도 네 번은 열렸으면 합니다. 행사가 자주 열려서 다른 도시까지 소문이 나고 더 유명해지고 커지면 서울 코믹월드처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요.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로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지요.



대전에서 열리는 디쿠펬스티벌처럼 서울에는 서울코믹월드, 부산에는 부산코믹월드를 정기적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생소하고 이게 무슨 행사일까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개성 넘치는 사람들과 자신의 재능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아이템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일반 팬시점은 상품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하고 특별한 제품들을 더 저렴하게 만날 수 있거든요. 개인 소장용으로 사기도 하고 선물하기 위해 상품을 삽니다. 전 주로 엽서나 스티커를 구매하지요.

입장권 구매 후 손등에 도장을 찍고 안으로 이동합니다. 입장 도장이 재미있습니다. 진지한 궁서체 도장을 입장할 때 보여주면 됩니다. 부스전에 열리는 1건물로 들어갑니다. 2층과 3층에 만화를 주제로 하여 관마다 다양한 부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부러울 뿐이죠.

부스전이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했는데 강의실별로 부스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주 열렸던 대전컨벤션센터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아졌지만, 대전시민대학에서의 디쿠펬스티벌 부스전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라 생각했습니다. 원도실에서 열리는 행사였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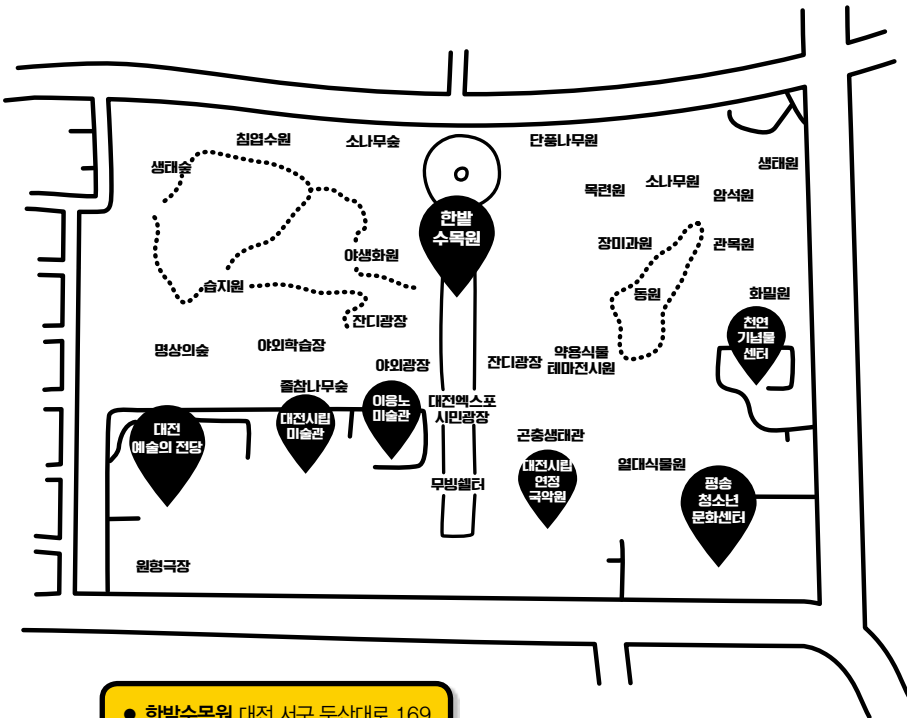
돌아다니다가 황금티켓을 가진 자를 만났습니다. 황금티켓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이벤트네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스상품권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

을 구매하면 되겠네요.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부스관을 나와 밖으로 나왔더니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로 변신하는 순간이죠. 코스프레를 하는 코스어들이 많습니다.

대전종합만화축제 디쿠펬스티벌, 대전의 또 다른 새로운 축제로 자리매김한 디쿠펬스티벌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고 행사를 진행할까 궁금했는데 대전시민대학에서의 행사는 신선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열린 부스관과 주차공간에서 만났던 코스어들, 재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놀러가 보세요!

한밭수목원 동원을 거니는 설레는 마음

대전광역시 소설미디어기자 변영래



● 한밭수목원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

한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복잡한 도심은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로 인해 더욱 더워져만 갑니다. 대전 도심의 한 복판에는 싱그러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한밭수목원이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밭수목원은 서원과 동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동원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반겨줄까 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동원에 들어섭니다. 제일 먼저 반기는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아이들의 독차지가 되지요.



이어서 장미원이 있습니다. 장미가 다 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장미가 피어있더군요. 마치 외국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의 아름다운 벤치가 있는 유럽식 쉼터가 있습니다. 가끔 이곳에서 모델이나 기념 스냅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언제 와도 주변에는 늘 아름다운 꽃들이 반깁니다. 사계절 마다 대표하는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한 여름의 피약별 아래에서 오랜 시간 걷는 일은 힘들지요. 하지만 한발수목원에는 군데군데에 쉴 수 있는 커다란 파라솔이나 벤치가 많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런 녹색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대전 시민으로서 대단한 행운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많은 사람이 식후 산책을 즐기러 옵니다. 동원에는 꽤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한 가운데에서 시원스레 내뿜는 분수로 인해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듭니다. 연못 가장자리를 한 바퀴 빙 둘러 볼 수 있게 나무 데크로 된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쪽에는 아름다운 한국적인 육각정이 있습니다. 재빠르게 자리를 잡는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이지요. 연못 주위로 는 부들이 한창 피어 있네요.

나무 데크 옆에 있는 그 넓은 잔디를 걷어내고 무언가를 열심히 심고 있네요. 가까이 가서 물어보았더니 그냥 꽃이라 합니다. 무슨 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나중에 또 다시 와서 봐야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찾는 직장인들, 아기와 손잡고 거니는 엄마, 삼삼오오 짝지어 다니는 친구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현재를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찾는 한발수목원입니다.

연못 주위로 난 나무 데크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돌이 주변에 이어진 암석원에 이릅니다. 암석원 앞에 있는 작은 인공폭포는 아주 약하게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시간에 따라 조절되나 봅니다.

한발수목원은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체험의 장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전을 살맛나게 하는 녹지 공간이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발수목원은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물 맑은 수통골 몸과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변영래



물이 맑고, 공기 좋은 수통골! 저절로 힐링이 되는 이 곳 수통골은 계룡산 국립 공원에 있습니다. 유성구 계산동에 위치한 수통골은 빈계산, 금수봉, 도덕봉으로 이어지는 산행 코스로 유명해 등산객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을 뿐 아니라, 천천히 거닐며 데이트하는 연인들, 삼삼오오 모여 산책하거나 홀로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 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을 지나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계곡에 보이는 자그마한 징검다리는 웬지 정겹게 보여서 늘 건너고 싶어집니다.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징검다리를 건너려는 마음은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곳곳에서 물놀이도 하였는데 계곡 가장자리로 나무 데크 길이 생기면 서 계곡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네요. 아마도 수질과 자연 보호 조치인 듯합니다. 느림의 미학이 무엇인지 느껴보려고 천천히 산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또 다시 나무 데크 길이 나옵니다. 지척에서 줄줄 흘러가는 물소리가 산길로 접어들면서 점점 크게 들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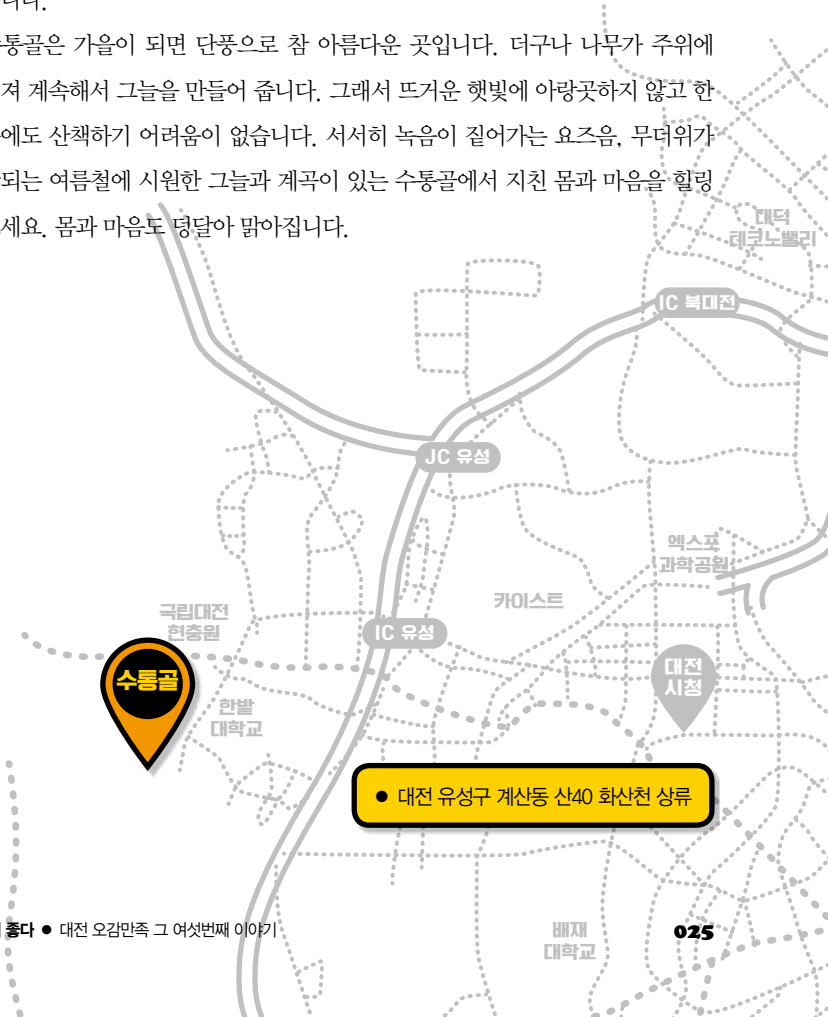




산행을 시작하여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자그마하지만 아름다운 폭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를 보니 더위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물살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2단 폭포입니다. 예전에는 폭포 아래쪽에서도 물놀이 하였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네요.

폭포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산길도 자연 흙길, 자갈길, 나무 데크 길, 자갈한 돌을 깔아 만든 길 등 다양합니다. 등산로 옆으로 이어지는 계곡은 물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맑습니다.

수통골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더구나 나무가 주위에 우거져 계속해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여름에도 산책하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서히 녹음이 짙어가는 요즈음,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과 계곡이 있는 수통골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몸과 마음도 덩달아 맑아집니다.



대전여행추천 야경시티투어!

대전의 밤은 아름답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손미경



킬링더워! 낮 동안 이글거리던 태양의 기온은 해가 넘어가도 뜨겁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뜨거운 가마솥더위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도 내려주지 않는 찜통 같은 무더위에 심신이 지쳐갈 무렵, 열대야를 피해 대전 야경시티투어를 떠났습니다.

01 유성 족욕체험장 <천연 온천수에 발이 호강!!> 대전 유성구 봉명동 574

대전 유성구는 국제관광특구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도심 속에 위치한 유성 족욕체험장. 날씨가 추울 수록 인기를 더하는 족욕체험장이지만, 족욕은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운 겨울 뜨끈뜨끈한 유성 온천수에 발을 담근다면야 더할 수 없는 힐링이지만, 한여름 피약별에 달궈진 내 몸과 마음에 뜨거운 온천수를 더해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도 여름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인 듯싶습니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40℃ 천연온천수에 발이 호강! 매년 5월, 가로수 길에 하얀 이팝꽃이 만개할 무렵 유성온천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곳. 뜨거운 온천수에 발이 호강하는 족욕체험장은 대전 시민과 유성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연중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천 온천수에 발을 담그며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인기 높은 족욕체험장입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정자와 파라솔 아래 수심





여 명이 동시에 족욕을 할 수 있는 100% 천연 온천수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중 공급되고, 주변경관 또한 예쁜 꽃들로 가득합니다. 뜨끈뜨끈한 온천수로 발이 호강한 덕에 심신의 안정은 물론 스트레스도 단번에 모두 날아갑니다.

02 대전시민천문대 <여름밤 별구경은 보너스!!> 대전 유성구 과학로 213-48

낮 동안 이글거리던 태양이 숨고 나면 도심의 밤바람은 조금 시원해집니다. 그런 틈을 타 대전시민천문대에 올랐습니다. 어두컴컴한 오르막길 아름답리 숲길의 멋진 분위기에 매료되어 별빛 가득한 추억여행을 떠나 봅니다.

우주의 신비로움 가득한 곳. 신비한 별세상을 만나기 위해 구불구불한 급경사를 올라 대전시민천문대에 도착하니 부모와 손잡고 나온 어린이들로 북적북적 합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셋. 어릴 적 밤마다 불러 봤던 콧노래가 절로 흥얼거려 집니다. 깜깜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면 더위도 아랑곳없습니다. 별자리 여행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은하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두컴컴한 오르막길을 마다않고 걸어 올랐을 천문대. 제일먼저 기념전시실과 체험실을 만나게 되는데요.

관측실로 올라가기 전에 전시실에서 열심히 학습해 두면 효과는 두 배. 이곳에선 사계절 별자리, 별의 탄생, 달의 위상 변화 등 전시 공간을 통해 별의 일생과 우주의 신비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별을 마주 할 수 있는 천문대는 아이들에겐 워터파크나 놀이동산보다 더 즐거운 놀이터이며, 어른들에겐 추억의 공간입니다.

천문관측은 야간에 이뤄지며 불빛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많은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 관측실에선 '직녀성'을 천체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보조관측실에서는 관측 가능한 별자리에 망원경을 미리 맞춰 놓아 별도의 조작 없이 망원경과 망원경 사이를 돌아가며 관측합니다. 보조 관측실에서는 '아크투루스'를 관찰했는데, 깜깜한 밤하늘에서 어찌나 반짝거리던지요. 갖가지 천체망원경들이 갖춰져 우주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천문대. 방문 전에는 필히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03 엑스포다리 / 한빛탑 음악분수 <열대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대전의 밤은 참 아름답습니다. 엑스포다리에 조명이 켜지면 환상적인 분위기에 시민들은 매료되어 한발수목원이나 엑스포다리 위를 걷고 또 걷습니다. 이렇듯 엑스포다리는 둔산 대공원과 엑스포과학공원을 연결하는 통로로 대전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명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갑천이 흐르는 은하수에 놓인 이 전우직녀다리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역사의 전통이 살아있는 대전의 상징 한빛탑. 1993년 대전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1993개의 화강암으로 경주 첨성대를 모티브로 하여 세운 상징탑으로 대전정부청사와 엑스포과학공원 일대를 360°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이번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서도 이 한빛담만은 남겨 두었다고 하지요. 여름 밤 한빛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분수와 견우직녀 다리에서 반짝이는 경관조명은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화려하게 터지는 음악분수쇼, 화려하게 솟아오르는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열대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04 **응능정이 스카이라드**
대전 중구 은행동

밤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응능정 이 스카이라드 불빛, 젊은이들이 늘 북적대는 곳이죠. 세계에서 4번째로 세워진 스카이라드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과 함께 대전 야경시티투어에 나선 대전광역시 e-시정도우미들이 응능정 이 스카이라드 아래 함께 자리했습니다. 상큼 발랄한 대학생 e-시정도우미들과 함께 한 대전 야경시티투어. 한낮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후끈 달아올랐던 밤이었습니다.



김홍택님이 **엑스포 다리**에 있습니다. 8월 20일

노트7 출시일이라 너무 바빴던 오늘, 잠시 바람 쐬러 왔어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전 대전이 좋아요. 야구만 좀 더 잘하면 소원이 없으려만 아 속 터져 구렁이 담 넘듯 일하다 와서 야근투어 후 또 야근 중. [#대전소셜미디어기자단](#) [#대전시티투어](#)

조회 855회

5,000원짜리 표 한 장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대전 야경시티투어는 사전예약으로 이뤄지며, 뜨겁게 달궈진 화색빛 도시가 어두워질 무렵,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역을 출발하여 유성죽육체험장 → 대전시민천문대 → 엑스포 한빛담 음악분수 → 응능정이 스카이라드 → 대전역을 끝으로 일정이 끝납니다. 입추가 지나고도 이글거리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대전 야경시티투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대전역 시티투어 승강장에서 출발하며 5,000원으로 대전의 아름다운 야경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열대야를 피해 대전 야경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대전 야경을 구경하러 떠나 보실건 어떠세요?

대전시티투어 홈페이지 www.daejeoncitytour.co.kr

장태산 자연휴양림 스카이웨이

초록빛 구름 위를 걷는 듯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가자 손미경



이른 봄 봄꽃들의 잔치로 눈 호강을 했다면 초록으로 곱게 물든 5월의 신록은 마음까지 싱그럽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만큼이나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으레 시원한 숲 그늘이 생각 날 때인데요. 봄 여행관광주간(5월 1일~5월 14일)을 맞아 초록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즐비하게 줄지어 서 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푸른 숲 맑은 공기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 되는 곳. 전국 최고의 메타세쿼이아 숲을 자랑하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에는 울창하게 짙은 숲속 메타세쿼이아의 향기가 피로했던 심신을 힐링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5월의 연둣빛 장태산은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메타세쿼이아 잎들이 너무나 신비스럽고 아름다워서...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어린이들의 세상인 5월 장태산 메타세쿼이아 숲속 놀이시설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가득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설치해 둔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오르고 내리며 자연 속에서 맘껏 즐기고 있습니다.

최고급 시설을 갖춘 테마파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엄마가 웃어주고 아빠가 든든하게 지켜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내 키보다 몇 배 더 큰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이렇게 멋지고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선사한다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런 멋진 산이 대전에 있다는 건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오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 여행 관광주간에 찾은 장태산은 연둣빛 고운 물결로 넘쳐납니다. 마치 용태울 저수지로 흘러들어 가는 계곡물처럼 말입니다. 나뭇잎 한 장 달려있지 않은 커다란 메타세쿼이아만 짙은 초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초록 가득 우거진 녹음은 안구 정화까지 충분히 해 주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규모는 없을 듯합니다.

뽕족한 잎 모양이 특징인 메타세쿼이아는 한여름이 되면 짙은 녹색으로 변함니

다. 휴양림 내 100㎡의 소규모 연못엔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연못을 가로 지르는 목조 데크를 오가며 연못 속의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산책코스를 걷는 것 또한 제법 운치 있고 재미있습니다. 휴양림 내 연못 주변엔 전통적인 모양을 한 정자도 설치되어 찾는 이들에게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장태산에는 대전의 깃대종 ‘이끼도롱뇽’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깃대종이란?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생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생물 종을 의미합니다. 대전의 깃대종은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3종이며, 폐가 없이 피부로 호흡하는 이끼도롱뇽은 2003년 장태산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숲속의 맑은 공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장태산은 가슴 시리도록 고운 연둣빛이 초록으로 물들어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이른 봄엔 고운 연둣빛으로 심신을 힐링시킬 만합니다. 낙엽 지는 가을엔 붉은 갈색으로 변신하여 풍광 또한 장관입니다. 사방 어디에다 눈길을 줘도 모두가 메타세쿼이아 일색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숲 장태산 자연휴양림에는 ‘숲속 어드벤처 & 스카이웨이’가 있습니다. 숲과 자연을 더 가까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색공간인 ‘숲속 어드벤처’는 전국 유일의 특성화 명품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나쁜 공기를 없애주고 좋은 공기를 만들어 주는 최고의 공기정화기이자 우리에게 거대한 산소공장이기도 합니다. 잘 가꾸어진 숲은 1ha당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하루 산소소비량이 0.75kg이라면 44명분의 산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스카이웨이를 오르는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전국 유일의 메타세쿼이아 휴양림으로 장태산만이 가진 특징을 살린 스카이웨이를 걸으며 짙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길 따라 걷는 기분이 아주 특별합니다.



● 대전 서구 장안동 산46

장태산 최고의 명물 스카이웨이를 걸으면 초록 구름 위를 걸어가는 환상에 빠져듭니다. 오르고 내리는 길은 한 군데뿐,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하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끼고 도는 스카이웨이를 걸을 땀 이따금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196m의 스카이웨이를 오르며 어른도 아이도 모두 환성을 지릅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바라만 봐야 했던 메타세쿼이아 나뭇잎을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나무의 키보다 더 높이 올라 초록 숲속을 거닐어 본 오늘은 고운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웨이를 돌고 돌아 제일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 내가 걸어 올랐던 구불구불한 스카이웨이가 초록 구름 사이로 비칩니다. 발아래는 예쁜 초록빛 물결들이 일렁일 뿐입니다. 숲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삼림욕입니다. 초록빛 물결 가득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하루를 함께한 시간은 온몸 구석구석 파고든 피톤치드 덕분에 한층 더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12선’에 들어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서 나무의 향내와 신선한 공기의 호흡으로 피로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넣어 주세요.

초가을 대청호오백리길 울트라 걷기대회에 다녀와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신영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라고 합니다. 근력과 혈액순환은 물론 척추 보정과 정신적인 행복의 효과까지 '걷기'의 소중함에 대해선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푸른 하늘과 녹색의 숲을 따라 가벼운 땀을 내면서 걷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 일겁니다. 9월 3일 아침, 하늘도 푸르게 청명한 초가을에 대전의 대청호 공원에서 2016년 대청호 오백리길 울트라 걷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울트라 걷기대회는 1,500명의 시민참가자들이 대청호와 금강을 끼고 10km와 30km의 거리를 걸어서 완주하는 건강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여러 가지 작은 행사와 체험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건강체크, 예술심리치료,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는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대청호 오백리길 울트라 걷기대회 소개

대회일시 2016. 9. 3(토) 10:00

대회장소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잔디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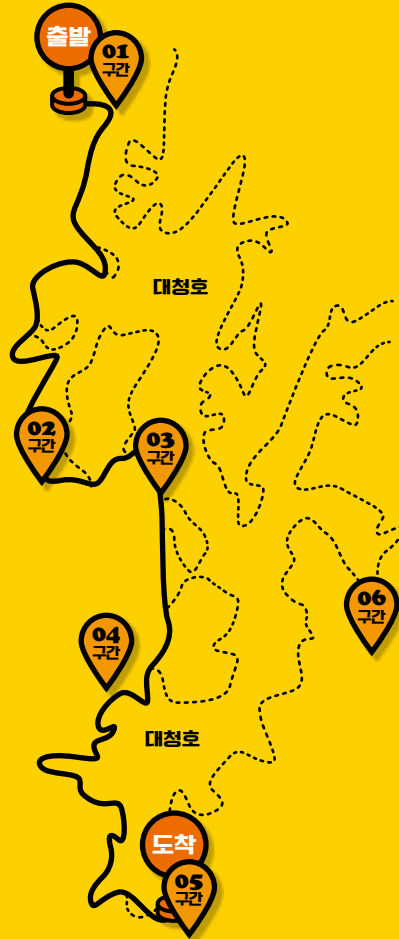
코스거리 단거리 10km, 공인코스 30km

참가대상 대전시민, 전국민(걷기 동호인)

예상인원 단거리 1,000여명, 공인코스 500명

주최 대전광역시

주관 (재)대한걷기연맹, 대전마케팅공사



오전 10시가 되자 1,500여명의 참가시민들과 권선택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김정훈 시의회의장 등이 함께 준비운동을 시작합니다. 무대 위 시범단의 운동에 맞춰 준비운동을 따라하는 시민들의 얼굴은 행복한 행사와 함께하는 미소가 물들어 있습니다. 팔, 다리, 허리, 숨쉬기 운동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몸을 풀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각계 인사들의 인사말에 이어서 제일 먼저 30km 구간에 참여하는 500명의 시민들이 걷기대회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로하스 대청공원을 시작으로 저녁시간까지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30km 걷기코스는 대청호반의 오백리길을 따라 두메마을, 냉천골, 추동 취수탑, 연꽃마을, 주산동 전망대, 홍진마을 입구에 이르는 코스입니다. 소요시간은 약 9시간입니다.

30km 구간의 시민들이 출발하는 동안에 공원 곳곳의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축제 참가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10km 구간 출발을 알리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10km 구간은 대청호 잔디광장을 출발하여 대청문화전시관, 용호교, 오가삼거리, 대청교, 잔디광장까지 돌아 오는 코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출발선에서 금강 로하스 길로 줄을 이어 걷기 시작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이번 울트라 걷기대회에 참가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가자단 기자들도 출발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에는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청명한 주말을 걷는 일은 흔히 만나기 힘든 행복 만들기 아닐까요? 1,000여명의 끊임 없는 시민들의 걸음이 길고 긴 줄을 만들며 대청호와 금강을 따라 이어지는 모습은 또 하나의 장관입니다.

10km 구간 코스에서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은 2명의 중학생 또래의 학생이었습니다. 형제로 보이는 두 학생은 구간 내내 거의 뛰어서 온 듯 합니다. 어른들도 간기에

쉽지 않은 길인데 환하게 웃으면 첫 도착지를 향해 달려 들어옵니다. 뒤를 이어 성인 남자 한분이 1위로 들어오고 바로 뒤로 여성 참가자 중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시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줄줄이 시민들이 도착지로 들어옵니다. 모두가 지친 기색이 없이 미소 띤 얼굴입니다.

연인 참가자도 보이고 아이를 안은 엄마 참가자도 보이고 친구들이 함께 무리지어 웃으며 도착지점에 들어오는 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행사는 매년 참여해도 좋을 듯 합니다. 완주를 하고 시민들이 도착한 행사장에는 여러가지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채 만들기, 천연옷감 물들이기, 활쏘기, 타로 즐기기, 이동도서관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휴식거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참가해 본 울트라 걷기대회는 여러모로 좋은 느낌입니다. 걷는 것을 주제로 하는 행사라는 것도 좋고 대청호와 금강을 무대로 진행되는 것도 좋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기회로도 손색이 없는 행사입니다. 2017년 대청호 울트라 걷기대회에는 30km 코스로 꼭 다시 참석하고 싶습니다.



보문산으로 도심 속 힐링투어를 떠나요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진아**



대전시가 9월 10일, 6개 민간정책그룹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스토리가 있는 도시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스토리탐방에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6개 민간정책그룹 등 15개 팀 약 100여 명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각자 팀별로 대전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를 발굴하는 도심 속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B팀인 우리는 '대전이 즐겁다'라는 뜻을 담아 'Be Joy'로 팀명을 정했습니다. 패기 있게 대전을 알리자는 뜻으로 '패기패기 열라패기!' 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동안 기자단으로서 대전의 거의 모든 곳을 다녀왔기에 장소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도심 속 힐링'이라는 주제에 맞는 곳을 생각해보니 보문산으로 정했습니다.

보문산에는 예전에 그린랜드, 케이볼카 등이 있어 신혼여행을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전의 핫플레이스였으나, 지금은 등산객 정도만 찾아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보문산의 과거-현재-미래에 중점을 두고 보문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Be Joy팀의 스토리가 있는 도시탐방 코스는 대전역 → 성심당 → UN탑, 을유해방기념비 → 전망대 → 보리밥 → 행복숲길 → 숲치유센터 → 보문산케이블카 순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많은 여행객으로 붐비는 '대전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대전의 명물 성심당에서 보문산을 먼저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facebook

이재나님이 새로운 사진 7장을 추가했습니다. ▾

— 김용자님, 임한솔님과 함께.

9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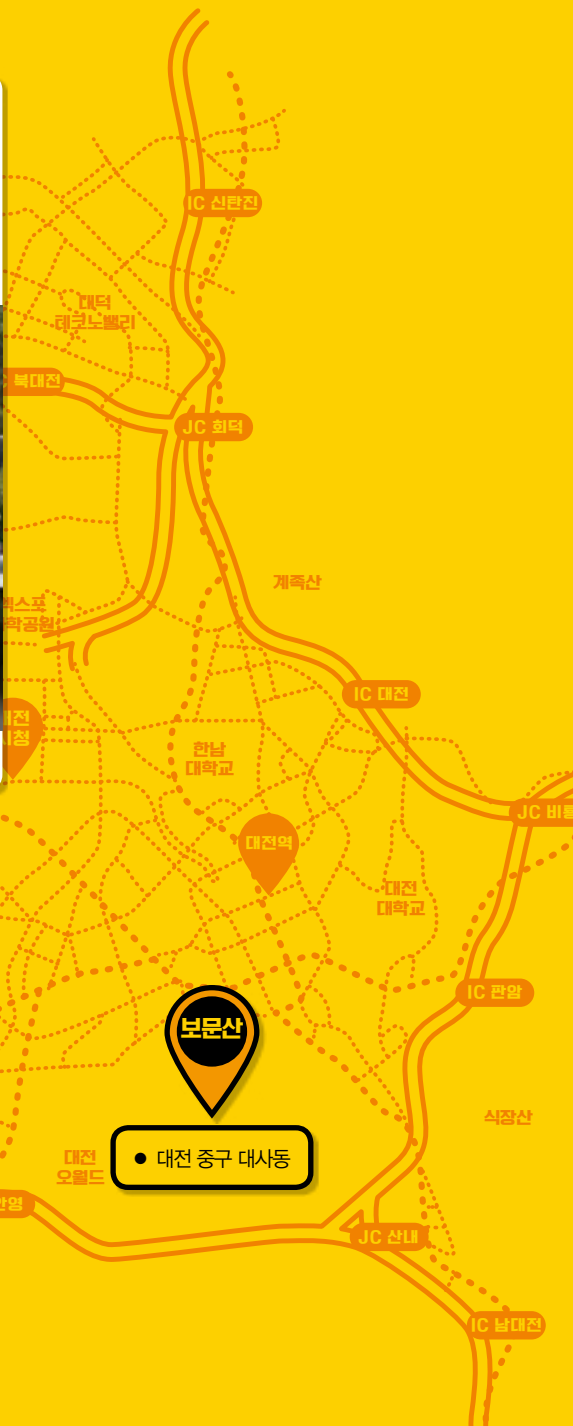
#비조이 #대전이즐겁다 #대전이좋다

#스토리가있는도시탐방

#성심당 #보문산



좋아요 75명



바로 '보문산 메아리'라는 이름의 빵입니다. 돌돌 말린 페스츄리가 보문산을 올리는 메아리같이 생겼답니다.

보물이 많아 '보물산'으로 불리던 보문산, 여러분은 보문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보문산은 오월드, 아쿠아리움, 인라인스케이트장, 식물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을유해방기념비, 6·25전쟁 때 대전방어작전 성공을 기념하는 UN 대전지구전승비를 통해 대전의 오랜 역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전망대를 통해 보문산 아래 펼쳐진 대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이는 보문산 전망대는 특히 야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또 여행에서 빠지면 섭섭한 먹방! 보문산 맛집하면 떠오르는 보리밥과 막걸리로 두둑해진 배를 소화시키기 위해 보문산 행복숲길을 찾아갔습니다. 무려 12개의 마을을 잇는 순환형 숲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새가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살랑이는 바람을 맞으며 걷는 숲길은 '아~ 행복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예전 보문산 놀이공원 그린랜드가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보문산 숲치유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바빠 움직이던 일상에서 벗어나 나도 모르게 스르르 긴장이 풀리게 하는 족욕과 커피 한잔의 여유, 도심 속 힐링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보문산을 내려오는 중 운영이 중단된 케이블카와 만났습니다. 보문산 케이블카는 1968년부터 2005년까지 37년간 운행하였지만, 지금은 중단되어 추억의 한구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대전 시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고물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폐쇄된 철길을 살려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은 대구 아양철길처럼 보문산 케이블카의 옛 정취는 남기고 다시금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많은 사람의 추억 속에 오랫동안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스토리가 있는 도시탐방은 대전의 색다른 매력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문산은 정말 보물을 품고 있었답니다.

대전 주말 여행 보훈둘레길 걷기 어떠세요?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창남



COURSE
 (8.2km 2시간 30분)

01 호국철도기념관
 02 양성평등화장실
 03 보훈센터
 04 충혼지 센터
 05 보훈과수랜드
 06 전망대
 07 보훈정
 08 보훈가족센터
 09 황톳길



보훈둘레길은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둘러싸고 있는 8.2km 둘레의 오솔길을 따라 걷는 길을 말합니다. 보훈둘레길은 2007년 빨강길을 시작으로 2009년에 주황길, 2011년에 쪽빛길, 2015년에는 파랑길, 초록길, 보라길을 완성하였습니다. 7 구간으로 구간마다 무지개빛을 붙여 7 빛깔 무지개길이 되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최규하 대통령, 일제강점기 민족 영웅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 ‘풍당풍당 돌을 던지자’, ‘기찻길 옆 오막살이’ 등을 작곡한 윤석중, 탈북하여 자유의 품에 안겼던 황장엽,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를 주도한 최순달 박사, 한국 최초의 영화 아리랑의 감독 라운규가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의 모친과 큰아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김구 선생을 암살한 민족반역자 김창룡도 함께 묻혀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11만 6,000여 위(位)가 영면(永眠)해 계십니다.

보훈둘레길의 첫 발걸음은 국립대전현충원 앞에 있는 표지석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현충교를 건너야 하는데 현충교에는 4개의 석등이 있고 12마리의 사자가 받쳐 들고 있습니다. 석등 하나에 세 마리의 사자가 연화대 위에서 고개는 하늘로 향하고 앞발로 들고 있는 모습인데 탄탄한 몸매가 펴 인상적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는 단련이 된 듯 팽팽하고 꼬리는 말려졌는데 정면 뒤에서 보면 꼭 양의 모습이라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현충원 입구에서 어둠을 밝히는 안내자를 자처하며 석등을 들고 서 있습니다.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져야 한다는 생각에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현충교를 건너면 푸른색의 천마웅비상(天馬雄飛像)에 압도됩니다. 천마웅비상(天馬雄飛像)은 여섯 필의 말이 힘찬 도약을 하는 모습인데 좌·우측에 세 마리씩 만들어져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넋을 원동력으로 힘찬 기세로 조국을 영원히 약진, 번영으로 이끈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천마웅비상(天馬雄飛像), 수컷 말이 하늘을 향해 나는 상이라 해석 될 수도 있어 성별이 궁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의 허벅지를 살피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지만 충(忠)의 단위에는 두 마리가 수놈이고, 한 마리가 암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義)의 단위에는 두 마리가 암놈이고, 한 마리가 수놈이어서 암수의 비율이 딱 맞



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에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천마웅비상(天馬雄飛像)의 여섯 필의 말을 뒤로하면 안내실이 있습니다. 그 안내실 앞이 바로 보훈둘레길 시작점입니다. 두 개의 해태상과 산책길 안내도 그리고 ‘대전의 걷고 싶은 길 12선’ 안내판이 있습니다. 출발하면 반듯한 메타세쿼이아와 잣나무를 만나는데 묘비를 보는 듯합니다.

사병1 묘역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실제 6·25전쟁 당시 이용되었던 미카 3형 129호 증기기관차를 볼 수 있습니다. 객차 2량을 더해 체험교육시설로 만들어 놓았는데 호국철도기념관입니다. 미카3-129호 증기기관차는 한국전쟁 당시 대전 기관차사무소 소속 김재현 기관사가 북한군에 포위된 미군 24사단장이었던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미 특공대원 33명을 태우고 적진에 돌진하였던 기관차였습니다.

장교1 묘역 옆을 지나면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20개의 돌로 이루어져(20 stepping stones) S-20으로 명명한 징검다리인데 2010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 회원국 하나하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20개의 징검다리를 건너면 아름다운 참나무와 소나무 오솔길이 인상적인 주황길입니다. 그리고 소나

무 숲속에서 뜻밖의 대나무 숲을 만나 놀라는 구간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굴곡진 아름다운 소나무 길을 돌아 내려가면 장군 1 묘역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만나는 곳으로 쉼터가 나옵니다. 쉼터에는 많은 사람이 쉬고 있습니다. 이곳 보훈둘레길은 참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산책길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교통편이 편리해서라고 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지하철과 셔틀버스의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 쉼터가 주황길이 끝나는 곳이며 노랑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노랑길은 조그마한 동산을 빙 도는 길입니다. 두 곳의 대나무 숲과 운치가 있는 소나무 길이 그만인 곳입니다. 그리고 노랑길이 끝이 납니다. 노랑길 이후부터는 2015년도에 새로 개통된 길입니다. 작은 개울을 건너며 시작하는 초록길은 늦은 봄과 가을에 운치 있는 길입니다. 애국지사 묘를 지나는 곳에는 역새가 있어 봄에는 초록의 편안함이 가을에는 역새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파랑길은 뭐니뭐니해도 조망지가 있는 곳입니다. 조망지에 도착하면 국립대전현충원 전체의 묘역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묘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들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주봉인 옥녀봉을 비롯해 신선봉, 갑하산, 도덕봉, 금수봉들이 하늘 금을 그으며 펼쳐집니다. 파랑길은 이곳에서 끝이 나고 내려가면서 쪽빛길이 시작됩니다.



쪽빛길은 우리 소나무인 조선소나무가 있어 운치를 더해주는 길입니다. 솔잎이 깔린 폭신한 흙길은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집니다. 향긋한 솔 내음과 심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멘트 길에 도착하여 쪽빛길이 끝이 납니다.

보라길은 보훈둘레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길입니다. 유성천을 따라 아름답게 이어지는 천변길이 일품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둘레길은 이런 점이 좋아요!

- 01 나라 사랑 마음 가득히 충전할 수 있어요. 묘역과 근접한 거리에 조성된 보훈둘레길을 걸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 02 내 스타일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구간별로 조성된 보훈둘레길은 자신의 체력과 취향에 맞춰 구간을 선택하여 산책할 수 있습니다.
- 03 자연의 살아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에요. 도심 속의 숲에서 삼림욕을 즐기며, 온몸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 04 소중한 내 피부를 지켜줘요. 보훈둘레길 전 구간은 숲길로 조성되어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소중한 내 피부를 지켜줍니다.
- 05 이용하기 편리해요. 구간별로 넓은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사람들을 위한 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한번 가볼까요. 먼저 현충탑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한 탑입니다. 현충탑 앞으로는 엄숙하고 경건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호국의 용기와 충성의 의지를 드높이기 위해 분수와 함께 동적 활력이 조각된 호국분수탑이 있습니다. 옥녀봉과 갑하산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과 호국분수탑이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다음은 현충지입니다. 현충지는 한반도 지도 모양을 본떠 만든 인공연못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충원 방문객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도 뛰어나 사진작가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충지를 뒤로하면 바로 현충원 정문입니다. 보훈둘레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이곳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종유성과학길을 아시는 지요?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창남



대전~세종시계
둘레산길잇기 구간
8.5km, 4시간 30분 소요



세종유성과학길은 대전시에서 2012년에 대전의 북쪽 마을인 신동과 둔곡지구에 만들어 놓은 길을 말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를 잇고 양 시민들이 소통하는 장소이면서, 주변 산림 관광자원을 공유하며 상생 발전하는 연결통로의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종유성과학길은 봉산동 버스 종점에서 시작합니다.

과학길이라 한 것은 신동과 둔곡지구를 지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동과 둔곡지구는 유성과 세종을 잇는 중심지역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설 지역입니다. 즉 대한민국 과학발전의 메카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첨단연구, 산업복합단지가 들어설 지역으로, 신동지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둔곡지구에는 연구, 산업, 주거지 등이 들어설 곳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세종유성과학길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준비된 길입니다. 지금은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호젓한 길이지만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로 개발이 된 후에는 많은 사람이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된 길, 세종유성과학길은 봉산동 버스 종점에서 시작합니다.

대전둘레산길 7구간 중 오봉산으로 갈라지는 서낭당 고개에서 첫 세종유성과학길이 시작되는데요, 소나무 숲길이 운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종유성과학길이라는 첫 이정표가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낮은 능선 길을 걷다 보면 삼각점과 안내판이 보입니다. 높이 192m의 백운산입니다. 세종유성과학길 중 유일한 산입니다.

금고동 고개를 내려가면 메타세쿼이아가 숲을 이루는 지역을 지나고 유성과 세



종을 잇는 신동길에 도착합니다. 이 신동 마을은 곧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마을입니다. 그 유명한 중이온가속기 시설이 들어서게 될 신동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신동천을 사이에 두고 메타세쿼이아 숲과 개울 건너 비닐하우스 단지가 한발수목원 꽃 묘생산지입니다. 한발수목원의 꽃과 나무를 이곳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 묘목이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어 잠시 발걸음 멈추고 둘러보면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일은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날 화사한 봄꽃을 미리 만나는 감동이 아닐까 합니다.

한발수목원 꽃 묘생산지에서 금강 변 임도까지 중간에 산길을 넘어가는데요, 오지를 탐험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때 묻지 않은 자연 숲길입니다. 산길을 내려와 논두렁을 건너면 금강 변을 따라 회화나무길이 이어집니다. 금강임도를 따라 이어진 회화나무가 금강과 함께 어우러져 세종유성과학길 중 가장 운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굽이굽이 회화나무 길을 따라가면 소문산성 안내석이 나오고 안내석을 뒤로하고 경사지를 오르면 소문산성에 도착합니다. 소문산성은 삼국시대 쌓은 테피식 산성으로 정상에는 소문산성 안내판과 등직한 바위 하나 그리고 상징적 존재감이 드러나는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산성은 대전의 갑천을 따라 북쪽으로 신탄진을 거쳐 금강으로 흘러드는 육로와 수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산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높지 않은 산성이지만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소문산성을 뒤로 하고 내려가면 세종시의 피꼬리봉 입구가 되는 대전시 경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종유성과학길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세종유성과학길은 이곳에서 끝이 나지만 소문산성을 내려가 맞은편 세종시 피꼬리봉의 장군봉은 꼭 올라가 봐야 할 곳입니다. 정상에 서면 굽이굽이 돌아가는 금강이 아름답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세종유성과학길은 교통이 불편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된 이후 과학도시가 형성되면 많은 사람이 찾을 명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대전의 숨은 명소 세종유성과학길을 추천 합니다.

집에도 신분이 있어요!

동춘당, 한발종각, 봉소루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창남



송촌동의 동춘당을 찾았는데요. 보물 제209호로 조선 효종 때의 문신 송준길이 살던 집으로, '살아 움직이는 봄과 같아라.'라는 뜻인 동춘(同春)의 호를 따 지은 집인데, 당(堂)을 붙였어요. 이와 같이 당(堂)을 붙인 이유는 집주인의 신분에 따라 집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춘당 집주인은 송준길로 신분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가(私家)에서 제일 높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당(堂)이기에 동춘당(同春堂)이 된 것이죠. 이처럼 당이 붙은 곳을 알아볼까요. 쌍청당, 제월당, 그리고 회덕향교와 진잠향교 안에 있는 명륜당 등이 있네요.

그럼 당(堂)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임금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일까요. 전(殿)을 붙입니다. 서울의 경복궁에 가면 임금이 집무를 보던 곳이 근정전(勤政殿)입니다. 그리고 왕비가 계시던 곳이 교태전입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 부처가 계시는 곳을 대웅전(大雄殿), 극락전(極樂殿)이라 하는 것은 임금의 신분보다 높은 성인이기 때문에 전(殿)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공자를 모신 향교의 대성전(大聖殿)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가의 지위가 높은 사대부나 절의 고승이 기거하는 집이라 해도 절대로 전(殿)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분의 제한 때문입니다.

당(堂) 다음으로는 합(閣), 각(閣)인데 합(閣)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각(閣)은 전(殿), 당(堂)의 부속 집으로 많이 지어지는데 주위에 널리 알림을 위한 공간으로 지어진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보신각(普信閣)이 있습니다. 대전에는 제야의 타종식이 열리는 ‘한밭종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각(孝子閣), 열녀각(烈女閣)도 이에 해당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제(齋), 현(軒), 루(樓), 정(亭)인데요. 제(齋)는 당(堂)건물의 부속 건물로 많이 사용되는데 가족들의 활동 공간으로 많이 사용 됩니다. 대전의 옥오제와 향교에서 학생들이 기거하고 활동하던 동제와 서제가 있네요.

현(軒)은 공무적 기능을 갖추고 대청마루가 발달하여 있는 집을 가리키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강릉의 오죽헌과 사극에서 사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동헌(東軒)이 있습니다.

루(樓)는 높은 집을 뜻하는데 주로 2층으로 된 집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신각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냥 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1층은 보신각 2층은 종루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새로 지으면서 보신각 현판만이 걸려 있어 그냥 보신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경복궁의 경회루도 생 각하네요. 대전 석교동의 봉소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亭)인데 우리는 흔히 정자(亭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색의 공간으로 산 정상에 경관이 좋은 곳, 물가 또는 연못 주위에 사색과 휴식, 풍류의 공간으로 지어진 집에는 정(亭)을 붙입니다. 가장 서민적이고 정겨운 집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계족산 정상의 봉황정, 구봉산의 구봉정, 무수동의 광영정 그리고 마을 입구의 정자가 모두 이에 해당이 되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절이나 궁궐, 고택과 같은 옛집들을 답사했을 때 알고 보면 즐거운 답사가 됩니다.

대전자전거여행 갑천자전거길 탐방 엑스포다리 황홀한 노을

자전거 활성화로 건강한 녹색도시 대전을 만들어요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임현철



대전의 주요 3대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자전거도로는 우리고장 대전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대전 주요 지역을 자전거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대전! 오늘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대전을 느껴보고자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엑스포과학공원까지 달려보았습니다.

대동천을 지나 천변을 따라 갑천 자전거 도로가 곧게 뻗어있는 이곳 자전거 전용도로는 평탄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이클을 즐기는 사람들 모두에게 두루두루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보았으면 알겠지만 정말 탁 트여 있는 주변경관을 보며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우리 고장 대전의 천변 자전거도로입니다.

계속 달리다가 힘들면 잠시 내려 인증샷 찍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즐기는 힐링여행,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도 자전거를 타면 생각보다 덥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 느끼는 청량감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저녁에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전거도로에서 본 노을은 정말 장관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보는 일상적인 풍경이겠지만 우리에게만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라서 잠시 서서 지는 해를 한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멀리 나가서 멋진 풍경을 봐야만 힐링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는 일상적인 소소한 풍경도 다양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계속 달리다 보니 벌써 엑스포다리가 보입니다. 성남동에서 해가 있을 때 출발했는데, 엑스포 근처에 도착하니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간만에 타는 자전거라 다리가 후들후들,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니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풍경이 좋으니 대충 찍어도 작품이 나오는 듯합니다. 갈길이 아무리 바빠도 경치가 좋은 곳에서는 한 템포 쉬고 가야하는 법!

이곳 갑천 자전거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주변 볼거리와 쉴 곳이 많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시원한 자전거 전용도로라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녁에는 건강을 위해서 산책 나온 사람들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대전예술의전당. 엑스포다리 야경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 바로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의 대표적인 종합공연장이라고 할까요? 오페라, 발레, 뮤지컬 같은 공연을 하기도하고 각종 세미나, 연회장으로도 활용가능한 곳입니다.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역시 자전거 타러 나온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낮에 보는 엑스포 다리, 해질녘에 보는 엑스포 다리, 깜깜한 밤에 보는 엑스포 다리. 같은 장소이지만 시간에 따라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엑스포다리입니다. 저 멀리 한빛탑 근처에서 분수쇼를 하는지 노랫소리와 시원한 물소리가 이곳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한참을 놀고 싶었지만 자전거 타고 집까지 한참을 달려야하기 때문에 음악분수쇼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출발! 야간 주행 시 라이트 사용은 기본. 이어폰을 귀에 꽂는 것은 NO!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집까지 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자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과 안전교육을 통한 우리의 인식,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리 이동은 승용차보다는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건 줄이고 자전거를 타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우리 대전을 건강한 녹색도시로 만들어보아요!

특히, 총 80만 권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문서고,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하는 복원실, 대전기록관 기획전시실은 실제 탐방에서도 무척이나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대전 천연기념물센터는 2007년 4월 천연기념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더불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위해 건립된 국립연구기관입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연구, 조사, 전시, 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했습니다.

2003년 4월 9일 착공하여 2007년 개관하였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2만 2942.7㎡, 연건축면적 3,882㎡이며, 지상 1층에 전시관과 수장고, 사무동, 2층에 강당과 옥상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석동 카페거리

‘반석동 카페거리’는 신도시 개발지에 들어선 이국적 카페촌을 활용해 젊은이들의 문화명소로 만든 곳인데요, 대전도시철도 반석역에서 아름다운 가게까지 이어지는 거리입니다.

르 쇼콜라 데 디유 이곳은 수제 프랑스 전통 초콜릿과 마카롱을 드셔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유 있는 시간에 이곳을 찾는다면 이곳 박시온 대표님의 친절한 즉석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후루룩 손칼국수 점심이면 언제나 북적거리는 손님들이 많아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먹는 이곳 반석동 맛집 중 한곳인데요, 음식점 곳곳에는 이곳만의 센스 있는 글귀들이 많이 붙어있어서 점심을 먹으러온 손님들께 재치 있는 유머를 선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음식으로 닭지볶음과 콩국수가 있습니다.

온주완 카페 대전 출신의 탤런트 온주완 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실제로 이곳 카페의 운영을 온주완 씨와 어릴 적 친구이자 동창인 이곳 사장님이 함께 동업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반석동 천변 길을 걷다가 이곳에 잠시 들러서 커피 한잔하는 여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티트레킹’은 대전지역 역사와 문화가 깃든 향토자원과 도심 도보여행을 연계하는 걷기 프로그램으로 도심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의 동반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보여행 3개 코스와 명사와 함께할 수 있는 테마코스로 구성돼 오는 2016년 12월까지 매주 2~3회씩 평일과 주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대전을 사랑하고 대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로봇호기심천국 2016

로봇융합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의 즐거운 현장학습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임현철



유유자적 물속을 헤엄치는 로봇, 이중 격투기 하는 로봇, 4D 영화를 관람하는 옷. 로봇 호기심 천국 '제5회 로봇융합페스티벌'이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창의, 열정, 도전! 로봇들의 열띤 경쟁이 세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제청소년로봇대회를 비롯해 지능형 SOC로봇대회 및 드론대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국방로봇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는데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개막식 행사에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인공지능로봇과 자율주행로봇이 나와서 행사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을 행사장까지 안내하고 꽃다발도 증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전산학연공동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로봇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로봇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받은 전시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 드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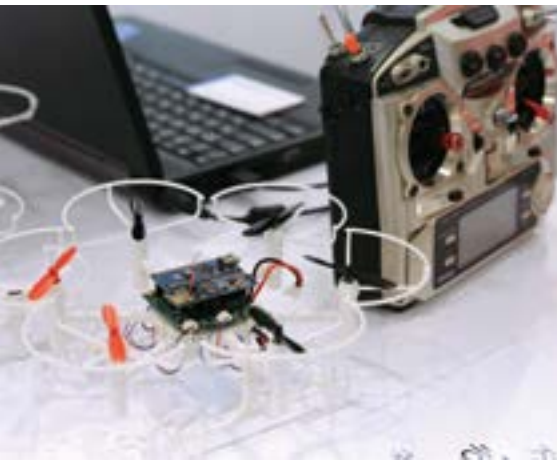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드론은 새로운 개념의 6축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 4D 체험

언제 어디서든 4D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옷이포디'라는 옷이 전시됐는데요. 사용자가 영화관람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이 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옷이 물, 바람, 진동, 연기효과를 재생한다고 합니다.

● 스마트 슈트

'스마트 라이딩 슈트'는 오토바이를 탈 때 맥박 감지와 후방 차량 감지, 블랙박스 기능, 운전 시 자동 전화 및 문자 기능을 탑재한 슈트라고 합니다.



● 주행로봇

핸드폰으로 조작 가능한 주행로봇도 흥미를 끌었는데요. 단순히 주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행로봇을 이용해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로봇입니다.

● 조립로봇

로봇을 직접 조립해서 작동시킬 수 있다면 더욱 애착이 느껴지겠죠? 로봇을 장난감 처럼 조립하는 새로운 개념의 완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실생활에 응용가능한 다양한 로봇기술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장소는 지능형 창작로봇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지능형 창작로봇 경연대회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70개 팀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지능형 Soc 로봇위 2016 행사는 카이스트 시스템 설계응용연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50개 팀 200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습니다.

2016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는 총 1,500여 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인데요. 미션창작, 장애물 통과 등 12개 종목 30개 부문에 대해서 열린 경쟁을 벌였습니다. 융합과학 창작 경진대회는 목원대학교 지능로봇공학과와 (사)한국로봇학회에서 주관하며 초, 중, 고 및 일반 부문 200개 팀 570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국방로봇콘테스트는 (주)엠텍과 (주)새온이 주관하며 가족부, 초등부, 중고등부 등 200개 팀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2층 로봇전시체험관에는 공주교대와 함께하는 과학체험, 로봇물고기 등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요.

세계 각국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2016 국제청소년로봇대회(2016 IYRC)'가 펼쳐졌습니다. 국제청소년로봇대회는 국제청소년로봇연맹이 주관하고 있으며 스티미션 등 7종목 11개 부문에 걸쳐 자유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2016 로봇융합페스티벌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교류, 판로확대, 로봇꿈나무 육성을 통한 로봇 대중화를 위한 행사였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현장학습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전국제와인페어 Free Wine Zone의 비밀이 궁금하십니까?



아시아와인트로피로 검증받은 와인을 마음껏 시음해보세요!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진아

올해로 4년째 개최되는 대전 대표 축제, 대전국제와인페어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궁금함이 가득했던, 와인페어!

과연 대전과 와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대전와인페어의 꽃, Free Wine Zone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금부터 낱알이 파헤쳐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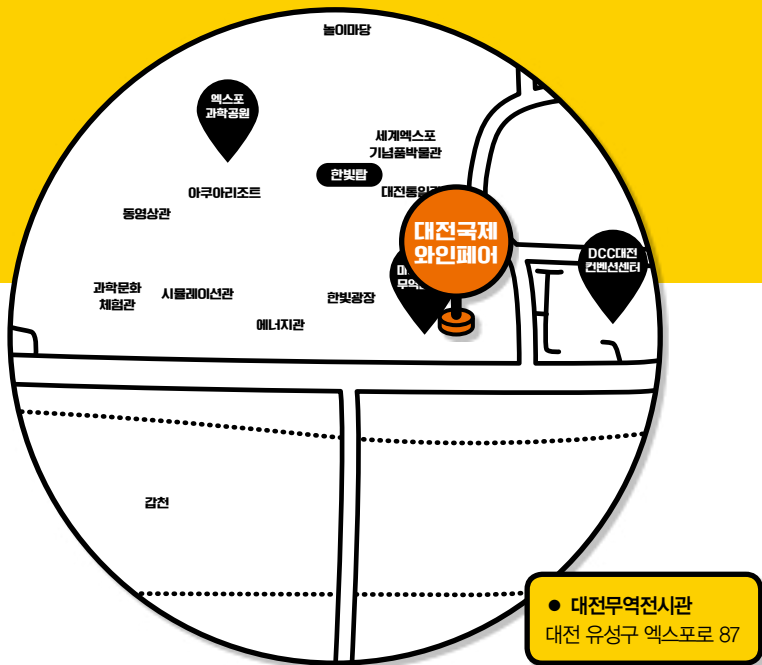
대전과 와인의 관계? 대한민국 최초 와인을 대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69년, (주)한국산토리는 산내 포도로 한국와인 '선리포트와인'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와인의 원조는 바로 대전이라는 점, 대전 토박이로서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보통 대전와인페어라고 하면, 대전무역전시관에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린 와인시음행사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와인페어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아시아와인트로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계유명와인전문가들과 함께 와인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아시아와인트로피는 제와인기구 OIV(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Vine and Wine)의 승인을 받는 세계 3대 와인 품평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대전마케팅공사와 독일 Deutsche Wein Marketing이 주최주관하며, 출품 와인 중 30%에 랜드골드, 골드, 실버 총 3등급으로 점수를 매겨 전 세계에 대전 상징탑인 한빛탑 로고가 박힌 메달을 달고 유통됩니다.





이번 아시아와인트로피에는 100여 명의 소믈리에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블라인드테스트로 평가되는 전 세계 27개국 4,100여 종의 아시아와인트로피 제품 와인들! 과연 어떤 와인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 저도 4일 내내 참 궁금했습니다. 수상와인은 와인페어에 자랑스럽게 전시 되어있었습니다.

와인페어를 돌아다니면서 시음한 와인 중 맛있다고 생각한 와인이 대부분 수상을 해, 역시 맛있는 건 세계인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대전국제와인페어의 경우,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주의 맛을 소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국제와인페어의 하이라이트는 Free Wine Zone입니다. 마시고 싶은 와인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관람객들이 가장 붐비는 구역입니다. Free Wine Zone의 와인은 이번 아시아와인트로피에 출품되었던 와인입니다. 내로라하는 와인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니, 그래서 대전국제와인페어가 인기가 있나 봅니다.

입장료 만원으로 전 세계 유명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대전국제와인페어에서 서로서로 이 와인 향 좋다, 맛있다며 추천해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인에 대해 잘 몰랐는데, 3년째 와인페어를 열심히 출석한 결과, 와인을 맛보는 미각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와인에 대해 잘 모르는 와인 초보자들을 위한 와인아카데미도 매년 개최 중이니, 내년에는 꼭 참가해보세요!

이제는 대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대전국제와인페어! 단지 마시는 즐거움뿐 만 아니라, 음악공연, 작품전시 등 귀와 눈도 즐거운 대전국제와인페어!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진 축제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와인이 대전을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학이랑 재밌게 놀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김지은



2016년 가을, 하늘은 높고 날씨는 따사로우 나들이 나가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어요. 바로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201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개최 소식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행사장에 방문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떠나볼까요?



축제가 열리는 한빛탑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네요. 아, 오늘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식 듣고 오셨군요. 이런 자리에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이 빠질 수 없지요. 실시간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인증샷도 남기고 엑스포공원과 93엑스포 이야기와 함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네요.

본격적으로 행사장을 돌아볼까요? 옹! 201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친구가 보입니다. 바로 사이언스 코끼리열차입니다. 방문해봤다면 알겠지만, 행사장 규모가 큼니다. 걸어가도 좋지만 코끼리열차를 타며 엑스포다리 위를 달리는 것도 또 다른 재미겠지요. 내년엔 방문한다면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한빛탑광장까지 이어진 행사장을 이동할 때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코끼리 열차 타고 엑스포 다리 위를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죠~ 정말 신나요~ 유후!

저는 코끼리 열차 타고 한빛탑 광장에서 이동해서 엑스포 시민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체전시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시체험행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 탐사관, 우주 항공 체험존, ICT 체험존, 드론 & 로봇 존 등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맞게 골라보고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facebook

김지은님이 새로운 사진 10장을 추가했습니다. ▼
10월 23일

행사도 크고 체험부스도 많아요//
어린이와 학생들의 축제네요//호춧//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요//
2016.10.22(토)~2016.10.25(화)까지 열립니다.
오늘이 2일째예요// 아이들과 다녀오세요//
www.kmjjeun.com
#대전축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마케팅공사 #엑스포시민광장






조회 855회

201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개막식 현장도 가봤는데요. 식전 해군본부 군악대 공연이 엑스포시민광장 주재전시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우렁찬 악기 소리가 엑스포시민광장을 울리네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방문하면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곁에 과학이 있네요. 과학의 도시 대전이라는 명성에 맞게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즐겨보세요. 보고 듣고 즐기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다녀오세요!



- 엑스포시민광장
- 한빛탑 광장
- 대전컨벤션센터
- 대덕연구개발특구
- 원도심 일원

주재전시관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보기만 하면 심심하겠지요? 2016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직접 체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더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신나는 심해탐사, 인공 태양 만들기, 분자요리 체험, 방송제작체험 등 다 적기도 힘들어요.

주재전시관을 나와 실외과학체험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와, 부스 정말 많네요! 제7회 대전영재페스티벌과 2016 대전자유학기제체험이 함께 열렸습니다. 대전에서 열리는 축제를 바로 201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니 참 좋았어요. 행사장을 둘러보니 어린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바라보는 저도 흐뭇했습니다. 책에서 보았던 내용을 직접 보고 만들어 보면 더욱 기억에 남겠지요? 멀게만 느껴졌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보세요!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는 201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재미있는 추억거리로 남아있겠죠?

과학도시 대전과 만나다!

ETRI와 지질박물관에서

대구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정영옥



대구광역시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은 1박 2일 워크숍을 위해 5월 28일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첫날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을 찾았는데요. 문화와 예술의 도시 대구와 달리 대전은 과학의 도시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탐방코스인 ETRI는 IT분야 국내 최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ETRI는 1976년 설립된 이래 반도체 기술 DRAM, 내 손안의 TV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스마트선박 기술 등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날 'ETRI 정보통신관'을 관람하며 IT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봤는데요. 이곳에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기술, 초고속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ETRI 연구성과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실제 영화배우의 모습과 같은 가상의 배우를 컴퓨터로 재현하는 '디지털 액터', 3D 영상 콘텐츠로 공부할 수 있는 '실감형 학습시스템', 원격 의료서비스 '차세대 IPTV' 등 IT기술이 실생활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날 '골드 전화기'체험이 기자단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골드 전화기는 머리뼈의 울림으로 소리를 전달해 청각장애인의 알림서비스로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슨트가 각자의 머리에 수화기를 갖다 대자 실제로 소리가 들려 신기했습니다.

ETRI 정보통신관 견학신청은 ETRI 홈페이지(www.etri.re.kr) 인터넷 접수코너에서 하면 됩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5회,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총 2회, 1시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042-860-3913, 6204)

두 번째 탐방코스는 지질박물관. 이곳 중앙홀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거대 공룡화석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곳에는 백악기 최강 육식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와 날개폭이 6m에 이르렀던 '프테라노돈', 미국 몬태나 주에서 발견된 '마이아사우라' 등 다양한 종류의 공룡 복제 표본이 전시돼 있어 공룡의 생태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전시관에 설치된 첨단영상시스템 'SOS(Science On a Sphere)'는 구형 스크린에 대륙이동과 기상, 화산, 지진 등 각종 지질현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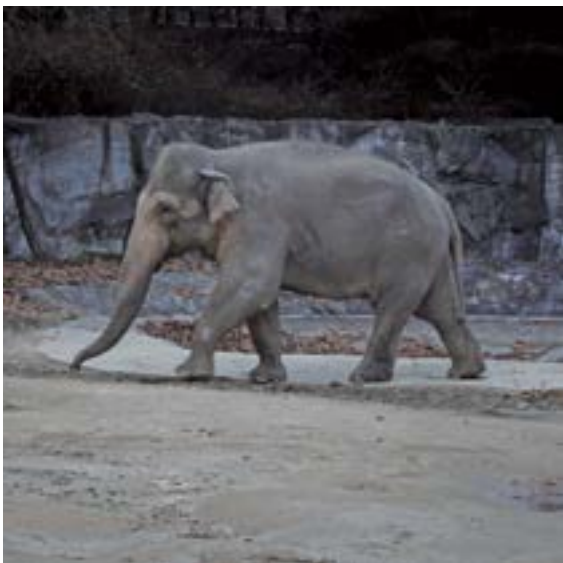
지질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정규 도슨트 관람 화~금 11:00, 13:30, 15:00 | 토, 일 10:30, 13:30, 15:00

인기 만점! 오월드 사파리 투어

대구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강영숙



“저 아메리카 검정곰 이름이 삼순이입니다. 삼순이가 제가 던진 건빵을 잘 받아 먹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잘 던져줘서 그런거예요~”

5월 29일 이른 아침, 대전관광명소 오월드에서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를 했습니다. 사파리 투어 중 사파리 해설사가 재치있는 입담으로 동물을 소개하자 너도 나도 배꼽을 잡습니다.

오월드 사파리 투어는 40인승 버스를 타고 사자, 호랑이, 코끼리, 곰, 라마 등 다양한 동물을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인기 만점 코스인데요. 사파리 투어는 국내에서 오월드와 에버랜드 단 2곳에서만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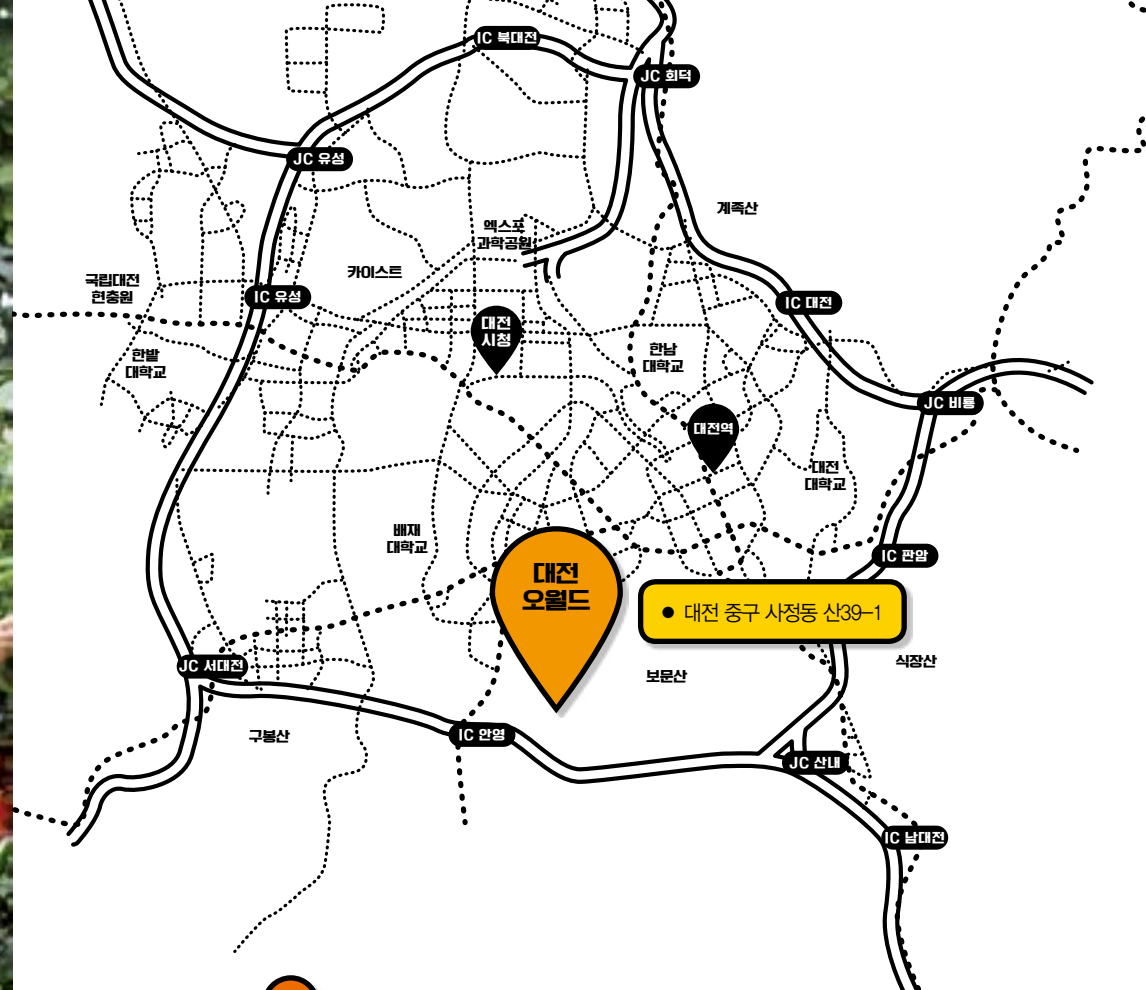
사파리 버스가 호랑이 구역으로 들어서자 나무 그늘 아래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벵갈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독 생활을 즐기는 습성 때문인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무리생활을 하는 밀림의 왕 사자 구역으로 들어서면 정반대의 풍경과 마주합니다.

“여러 암컷 사자를 거느리고 있는 저 사자 보이시죠? 오월드에서 가장 잘생긴 숫사자입니다.”

깔깔깔 웃음이 터집니다. 언뜻 봐도 아까 지나친 사자보다 잘생긴 것 같네요. 여자친구를 독차지하고 있는 숫사자의 모습이 위풍당당합니다.

오월드 사파리 투어를 하면 꼭 아프리카에 온듯한 착각이 듭니다. 동물들의 모습을 보며 동심으로 돌아간듯 환호성이 터집니다. 눈이 참 예쁜 일린드와 라마, 얼룩말 등 초식동물도 사파리를 유유자적 거닐고 있습니다.

오월드 사파리 투어 시간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관람해야 할 정도니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게 좋다고하네요. 오월드는 130종의 동물이 있는 ‘주랜드’와 아름다운 꽃천지 ‘플라워랜드’, ‘놀이동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갖추고 있어 가족과 함께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Tip

세계 희귀조류를 한 자리에서! 오월드 버드랜드(Bird Land) 개장

오월드 버드랜드는 39종 374마리의 세계 희귀조류를 관람할 수 있는 버드체험 공간을 비롯해 닝쿨성 꽃화분으로 연출한 '행잉가든', 대형조류인 앵무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애니멀피딩존'으로 구성되어있고요.

희귀앵무새와 물총새, 남아메리카 펭귄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공간 '열대정원', 맹금류의 비행모습을 볼 수 있는 '이글플라잉존', 앵무새의 퍼퍼먼스 공연이 펼쳐지는 '버드익사이팅존', 열대수생식물과 앵무새의 자유비행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공간 '수련정원' 등 이색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만날래

— 대전 오감만족 —

대전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김관식 선생을 만나다



4대를 잇는 아름다운 전통 북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고희정

타는 듯한 더위가 언제쯤 끝이 날까 했는데, 하룻밤 내린 비에 씻겨 물러났습니다. 역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하늘이 하는 일은 감히 인간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며칠 사이에 하늘이 더 높고 맑고 푸르러진 지난 토요일, 저와 막내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한밭문화마당의 『보이지 않는 문화재에 날개를 달다』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 더 기대됐어요.

첫 주에는 ‘반갑다! 무형문화재’라는 주제로 대전의 무형문화재에 대해 알아보았고, 둘째 주는 ‘악기장 김관식 선생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관식 악기장은 대전무형문화재 제12호입니다. 나무통에 가죽을 입히는 작업을 ‘북 메우기’라 하는데, 대전전통나라관에 가면 악기장의 작품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전역 뒤에 있는 공방 ‘대한민국 국악사’에서는 악기장이 작업하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악기장의 할아버지는 젓갈로 유명한 충남 강경에서 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대인 아버지는 대전으로 건너와, 어머니와 함께 공방을 운영했구요. 그래서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일곱 살 때부터 악기를 만들었다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지요.

“어머니 뺏속에서부터 배웠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요. 허허.”



그리고 열두 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북을 만들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아! 그 어린 나이에 평생의 목표를 세우다니 정말 몽클했습니다. 할 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 3대째 악기장으로서 평생을 일해 왔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십 대 때 가장 힘드셨대요. 누구나 그러듯 사춘기가 가장 힘든 때이지요. 당시에는 양복점과 양장점들이 많이 생겼을 때라, 열네 살 때 사흘 동안 단추를 달아보았대요. 이렇게 짧은 방향을 거친 악기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3대째 우리 전통 북을 만들고 있는 '인간문화재'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간문화재라는 낱말이 더 많이 쓰인 것 같은데요, 악기장 말씀이 행정상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뉘는 것이라서 '인간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같은 뜻이라 하네요.

그리고 그 뒤를 아드님이 있고, 따님은 북에 멋들어진 그림을 그리는 단청 작업가랍니다. 당연히 악기장 뒤에는 살갑게 내조하는 사모님이 계시고요. 와, 정말 대단한 전통문화 계승 가족이죠?

악기장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난 뒤, 아이들과 진짜 소가죽으로 소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저렴한 소고는 올림통까지 100%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덕분에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요. 공방에서 밀 작업한 미완성 소고를 받아보니, 올림통의 앞면과 뒷면에 소가죽 두 장이 마주 보며 붙어있었습니다. 이 두 장의 소가죽에는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 있어서 아이들은 굵은 끈으로 엮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도 절대 만만하지 않았던 것이, 아이들이 잘하고 있나 하나하나 봐 주던 악기장의 날카로운 눈에 띄면 가차 없이 다 풀려서 처음부터 다시 엮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체험거리라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게 꼼꼼히 봐 주는 모습에서 '장인'의 진면모를 엿보았지요.

사진에 제대로 담지 못했는데, 악기장의 손은 오랜 세월의 훈장인 듯 물집과 굳은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져 본 소가죽은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야 올림통을 감싸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삭 바삭해지는데, 집에 돌아올 때쯤 정말 팽팽하게 말라서 맑은소리가 퐁퐁 났습니다.

저도 이날에야 알았는데, 악기장의 작품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 왔답니다. 1988년 여름,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기억하나요? '성화 점화', '굴렁쇠 소년의 등장'과 함께 그날의 3대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용고 행렬'의 그 큰 북이 바로 악기장의 작품입니다.

바덴바덴에서 사마란치 당시 IOC 위원장이 'SEOUL!'이라고 발표하는 뉴스를 보고, '바로 이거야!' 하셨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했대요. 왕을 상징하는 용 그림이 새겨져 '용고'라 불리는 이 북은 무게만 480kg으로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북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열두 살 소년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진 순간이지요. 2년 여에 걸쳐 만든 이 용고를 대전에서 서울까지 옮기는 데만도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안타깝고 서운했던 이야기도 풀어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올림픽 이후로 작은 감사 인사조차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대요.

그러다 일간지에 서울올림픽을 회고하는 기록을 쓰던 박세직 조직위원장의 발견으로 작은 표창을 뒤흔게 받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춘추관과 파주의 통일전망대, 그리고 한남대학교에 있는 용고까지 서울올림픽의 용고와 같은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형제 작품들이래요. 다음에 뉴스에서 청와대 브리핑 장면이 나오면, 용고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고 사랑하나 봅니다.

아이들이 한 땀 한 땀 열심히 엮어 만든 소고에 친히 이름을 남겨주시는 김관식 악기장!

용고를 비롯하여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전통문화에 더 많은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덕특구 과학동네 사람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 장인순 박사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방성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의 절반 이상은 “과학자요!”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 데에는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전이 토대가 되었는데 말이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던 사람들 중에는 척박했던 우리나라 과학의 기반을 세우고자 밤낮없이 연구실의 불을 밝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동네 대덕특구 사람들입니다.

장인순 박사. 우리나라 원자력의 살아있는 역사로 통하는 1세대 원로과학자입니다. 1940년 출생, 여수고등학교와 고려대를 거쳐 캐나다와 미국에서 화학을 공부했고 연구원으로 재직 중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재미 과학자 유치프로젝트’에 따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당시 과학자 중에는 장인순 박사처럼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로 선진국의 보장된 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내려와 보니까 말이야. 허허 별판에 연구소라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데, 실험실이라고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테이블도 하나 없어. 깜짝 놀랐지. 뭘 갖고 연구를 하라고. 황당하고 막막하더라고. 그래도 일단은 뭐라도 하자 싶어 사과 상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실험도구를 올려서 일을 시작했다고”

사과 껍질 위에서 시작한 연구는 이제 원전기술 95% 이상의 자립도를 갖출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치러야 했던 수많은 도전과 실패, 위기와 성공들....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느새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해 버렸습니다

올해 7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장인순 박사. 하지만 학문에 대한 박사의 열정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2005년 원자력연구소장으로 퇴임한 뒤 현직에서 물러난 지 10년도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면 자신이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사무실에는 책이 가득합니다. 흡사 도서관처럼 장르와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았는데 그 범위가 모든 학문을 넘나듭니다.

장인순 박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좀 잘 지켜주세요.”



그의 하루가 바지런합니다. 그의 자명종이 울리는 시각은 새벽 4시 42분, 매일 아침 그 시각에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아침 운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1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입니다. 좀 편하게 쉬고 싶은 날은 없느냐고,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저의 우문, 그리고 장인순 박사의 현답.

“11년간 지켜온 나만의 기록을 깨기가 싫어.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 아마 나보다 몇 년 더 산 선배라 할지라도 내가 눈 뜨고 산 시간은 그분들보다 많을 거야.”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은 사람과 시간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겐 시간은 농밀하고 천천히 흘러가며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에 훨씬 더 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순 박사의 하루하루는 여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왕성합니다. 대덕의 과학문화를 대중과 연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벽돌 한 장’의 주축으로 활동 중이고요, 방송과 신문 등 언론과의 인터뷰도 끊임없습니다. 대전챔버오케스트라 창단멤버이기도 하지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실의 화분들을 보살피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아 모든 화분이 싱싱합니다.

아름다운 청춘이 지성과 감성과 열정이 생동하는 상태라면 이분은 분명, 아직도 아름다운 청춘입니다.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후배나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에도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본인의 멘토링으로 인생이 달라진 학생도 꽤 된다고 하는군요. 멘토링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이 없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데.”는 장인순 박사, 원자력발전과 같은 뜨거운 에너지는 그의 가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카리나와 함께 행복한 인생 여행

대전 오카리나 동호회 소리여행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방성예



대전시민천문대에서 열리는 ‘별 음악회’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날의 공연은 바로 오카리나 연주였습니다. 둥근 천체관의 천장에는 별자리가 흐르고, 누워서 감상할 수 있는 특수 의자에 앉아 듣는 오카리나 소리는 정말 우주와 별을 상상하기에 최적의 소리였습니다.

그날의 연주자들은 바로 오카리나 동호회 ‘소리여행’인데요. 평소 봉사활동 연주도 활발하게 하는 7년 차 동호회입니다. 연주도 좋고 봉사하는 뜻도 참 좋았기에 제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방송 대덕밸리라디오에 초대해 방송도 했습니다.



오카리나 소리가 좋기도 하지만 연주가 더 아름다웠던 것은 회원들의 팀워크가 잘 맞기 때문이라는 걸 방송을 지켜보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대전 시민 여러분께 좀 더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탄방동에 있는 ‘소리여행’ 연습실에서는 회원들이 모여 연습을 합니다. 오카리나 동호회 ‘소리여행’은 모두 9명으로 이루어진 동호회인데 매달 여러 곳의 연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찾아가 연주회를 열거나 유성온천역에서 연주회를 연 것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지난해 대전 원도심 ‘차 없는 거리의 날’에도 공연을 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연주하는 오카리나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악기가 작을수록 높고 얇은 소리가 나고 악기가 클수록 낮고 울림이 큰 소리가 납니다. 또한, 멜로디를 끌고 가는 악기, 리듬과 박자에 특화된 악기 등 그 역할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카리나 연주는 소프라노, 알토 등의 다양한 파트별 연주와 화음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크기와 역할의 오카리나를 가방 하나에 모두 들어가게 갖춘 회원도 있는데 그 가방은 가격으로 보나 가치로 보나 웬만한 명품 가방 못지않다며 자랑이 대단합니다.

살림밖에 모르던 주부들이 오카리나 소리에 끌려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강사로 활동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하는 것이라지만 주부들이 몇 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시간을 지켜 연습을 해오기가 쉽지는 않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연습 시간을 지키는 건 자신과의 약속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함께 하는 멤버들과의 팀워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기로 화음을 아름답게 낸다는 것은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맞춰 즐겁게 연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여행 멤버들, 오카리나가 인생과 세상을 가르쳐주는 좋은 도구라고까지 합니다.

멤버 중 어떤 분은 오카리나를 불면서 악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뿌듯합니다. 오카리나를 불기 전에 우울증에 걸릴 듯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된 것은 물론이며, 지금은 회원의 대부분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가르칠 때보다 배울 때가 더 즐겁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기쁨이 남다를 때도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결해 1년에 두 차례 3박 4일의 오카리나 강습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오카리나를 통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 중 몇몇이 제주도 앙상블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다군요.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오카리나’를 통해 이분들은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원은 인생이 통째로 변하기도 했어요. 전기 기술자였던 남편이 아내의 오카리나 연주를 듣고 반해 오카리나를 직접 제작, 유통하는 사업자로 변신했습니다.

가장 큰언니인 권영심 회원은 “오카리나가 아니었으면 60대의 나이에도 이렇게 젊고 활력넘치게 생활할 수 있었겠나 싶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무척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엉뚱한 공식이라도 써보고 싶은 만남, 오카리나 동호회 ‘소리여행’ 여러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대전시 공유와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 현장 공유 아이디어 봇물



도시재생 아이디어 사례 발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경숙



지난 5월 17일 '공유와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가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정책 토론회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유와 도시재생이 서민들의 삶과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 직접 참여해봤는데요. 20대부터 50대, 학생에서부터 마을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과 여러 분야의 직업군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김영진 씨의 사회로 '공유에서 보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에서 보는 공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는 '도시재생과 공유'에 대한 이론과 유성구 어은동 공유마을 사례를 통한 주제발표로 구성됐는데요. 5개 조로 나뉘 팀별토론을 한 후 토론결과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공유

먼저 김은란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과 공유'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유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소비의 개념으로 기존자원(유휴자원)을 활용해 대여자, 이용자, 공유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중고 제품부터 공간, 지식, 교통, 물건 등 예전에는 공유될 거라 예상하지 못한 모든 것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공간의 경우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이나 마을 단위의 공유 공동체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구 어은동 주변에 주거(꿈꿀통), 사무(별집), 가게(비밀BeeMeal) 공유 등 공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Beepark Project'가 국내 최초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 기반 공유경제 시범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청년들이 나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것이 모델이 된다니 대전 시민으로서 뿌듯해집니다. 공유경제를 위한 제도적 허용기준 등 개선해야 할 부분과 국내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공유마을을 커다

두 번째로 이태호 공유마을대표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한다는 표현 그대로 학생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십시일반 공간을 임대하고 돈을 아끼려 직접 공사를 하면서 별집이라는 이름의 코워킹스페이스가 만들어졌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성구 어은동 일대가 벌집이라는 공유공간을 통해 함께 사는 법과 공감,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또 다른 공유와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공유친화 시범마을이 되었다고 하네요.

「공유친화 시범마을」공유마을이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수의 공동체가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유가치를 시민들에게 전파하며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지역

세어하우스 꿈꿀통, 공유 주방 비밀, 공유 서점 유어왓츄리드 등 청년들이 모여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내고 직업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 경제의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대를 뛰어 넘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더 튼튼한 공유를 위한 공유마을 반상회와 공유 홍보영상 등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과 청년들이 함께 방문하는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선진지로 주목받을 만하죠?

팀별토론

5개의 테이블에는 논의 주제로 세 가지 질문이 주어졌는데요.

01. 세대를 넘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02. 공유문화를 위한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03. 지속가능한 공유를 위해 어떤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04. 현재 상황에서 하고 싶지만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 그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현장 추가 질문)

각 테이블에는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1조 LH 연구원 황규홍 박사, 2조 우리문화연구원 이상희 박사, 3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장용석 팀장, 4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윤용석 박사, 5조 공유마을 이태호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퍼실리테이터로 함께 했습니다.

팀별발표

제가 속했던 2조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 개발 위주가 아닌 기존 건축물을 공유하는 ‘공유문화를 위한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원도심에 예술가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보다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주고, 대전역에 여행자들에게 원도심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스템의 필요성과 함께 어은동에는 학생을 위한 문화, 원도심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등 지역마다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토론한 팀에서는 나이, 직업, 성별, 공간에 대한 20대~40대의 각 세대 간 고민부터 시작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서로의 고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40대의 보육에 대한 고민을 20대에게 반찬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하자고 했을 때 20대는 금전 등 합리적 이득이 없으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안 화폐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네요.

‘공유공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축제가 일부 세대의 한정적 참여의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청년의 아이디어와 기존 세대의 경험을 더하고 지역 특성의 한계를 고려하는 등 세대를 넘는 공유가 가능할 때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화벽화마을의 마을주민 피해사례를 통해 숙의하는 과정의 필요성과 모두가 윈윈(win-win)하도록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은란 연구원은 소감을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해 재미있었고, 공유를 같이 생각해보는 자리여서 좋았다. 지속 발전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고민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세대를 뛰어 넘는 공유를 통한 도시재생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던 만큼,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진 것은 주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한 걸음이라고 생각돼 뿌듯했답니다. 유성의 공유마을처럼 대전이 시범모델이 되어 많은 곳에서 배우러 올 날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서구마을넷 세미나 현장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경숙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육아나 개인의 문제를 마을도서관이나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임에 대해 대전시는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지원기관인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기르기도 하고요, 공동체들이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쌓으며 하나의 공동체로는 할 수 없던 일을 꾸려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누구의 엄마였던 주부들이 본인의 이름을 찾고 마을활동가의 역량까지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4월 대전의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을 만들었는데요, 대전 5개 구별 환경이 달라 각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 필요성을 느꼈기에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해 대전의 4개 자치구(대덕구, 서구, 중구, 동구) 공동체들이 모여 구별 마을넷 결성식을 치렀습니다.

서구마을넷도 올해 4월 29일 서구청에서 오픈파트 형태로 결성식을 가졌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서구청 공동체지원 부서의 도움을 얻었고, 서구청에서는 서구마을넷 결성식을 통해 활동가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구청 공동체지원 담당 주무관은 ‘마을활동 컨설팅 계획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구마을넷과의 공동 회의를 통해 담당자의 행정 전문성과 마을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접목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관에서 준비하고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민관협치의 시작 아닐까요?

서구마을넷 세미나

지난 7월 19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구마을넷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4월 결성식 원탁회의에서 많은 공동체가 필요로 했던 것이 공간의 문제였는데요.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공간에 대한 민관협치’를 이번 세미나의 주제로 잡았다고 합니다. 주제가 민관협치인 만큼 대전 시민과 마을활동가 외에도 유관기관, 공무원 등 6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곰 다리 네개~, 새 다리 두 개~♪”

머리가 나쁜 건지, 손가락이 뻣뻣한 건지... 여는 마당을 진행한 가온누리봉사단 이문희 대표의 공동체놀이로 첫 만남의 서머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는 주제 강연으로 ‘민관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리더십의 민관협치에 대한 결단을 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어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우호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협력이 일어나 사회적자본이 만들어지고, 개인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요. 열린 마음에서 시작한 강연은 주제만큼 딱딱하지 않게 풀어주어 이해하기 좋았다는 평이었답니다. 강연 후 원탁회의에서는 주제와 관련해 ‘민관협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중에서 시급한 것 3가지 정도씩 선정해봤는데요. ‘마을의 문제인식’, ‘공간’, ‘리더십’, ‘지속적인 만남’, ‘서로의 필요성 공유’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민관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간 등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요. 그중에서 공간의 필요성과 함께 조례를 만들고 정기적

인 포럼을 통한 소통이 시급하다 등 조별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의견을 가지고 서구마을넷의 활동이 이어지겠죠?

원탁회의까지 지켜본 장수찬 교수는 ‘나는 놈을 이기는 놈은 계속하는 놈’이라며 민관협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다른 3개 구에서도 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들로 세미나가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서구마을넷 세미나에서는 구청장과 동장 등 리더십을 가진 결정권자의 참여가 조금은 아쉽기도 했지만 민관협치에 대해 첫 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도 되겠죠?



행방 묘연 대덕구 읍내동 장승 25년 만에 찾은 사연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광섭



제가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읍내동 장승을 최근 회덕동주민센터 화단에서 25년 만에 다시 찾기까지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돌장승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대전은 돌장승의 도시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대전에 돌장승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승은 보통 마을 입구에 세워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정월 열나흘날 장승제를 지내는데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장승은 나무장승과 돌장승으로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청양이 나무장승문화권이라면, 대전은 돌장승문화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대전에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많은 돌장승이 전승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돌장승은 그 형태에 따라 인면형 장승과 선돌형 장승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인면형 장승으로 대표적인 곳은 대전광역시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법동 석장승입니다. 이외에도 읍내동 뒷골장승, 용운동 용방이장승, 비룡동 줄골장승 등이 얼굴이 있는 인면형 장승에 속합니다. 이 외에 대동 장승과 소제동 장승, 그리고 괴곡동 장승은 선돌형 장승으로 천하대장군 등 명문이 있거나, 명문이 없는 경우의 장승도 있습니다.

읍내동 장승, 왜 화단에 누워 있었던 것일까?

제가 찾은 읍내동 장승은 대덕문화원에서 1997년 12월에 발간한 대덕문화총서2(글, 사진 : 강성복) 『대덕의 문화유산』이란 책자 122쪽에 수록된 장승인데요, 지난 3월 13일 현 회덕동주민센터 화단에서 눕혀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2기의 선돌이 마주 보고 있는데, 예전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훼손되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바로 이 장승이 어떻게 현재의 회덕동주민센터 화단으로 이동하여 눕혀진 상태로 오랜 시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된 듯 있었는지는 현재로써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약 25여 전 토목공사로 훼손되었다는 읍내동 장승이 눕혀진 상태로 회덕동주민센터 화단에서 확인된 이상 지역 문화유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덕

문화원, (사)대전문화유산올림, 회덕동주민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21일 화단 앞에서 눕혀진 읍내동 장승을 다시 현재의 자리에서라도 최소한 다시 세우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읍내동 장승 다시 세우기’ 행사는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읍내동 장승을 찾은 것은 지난 세월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에 눈떴기때문

저는 건축과를 졸업한 후 건축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평상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두게 된 이후에 ‘문화유적의 세부명칭(2000년 10월, 문경출판사)’출판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 관심을 두고 대전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기록을 했어요. 2011년 5월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대전 문화유산 이야기를 공유하였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대전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문화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부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화재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위치도 몰라서 책과 인터넷 그리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답사를 했습니다. 어느 곳은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서 그곳을 수차례 다닌 적도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시내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다녔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없어서 산성을 촬영하기에 좋아서 찾아다녔지요. 그러다보니 도둑으로 오인도 받기도 하여 전화번호, 신분증, 차량을 보여드리고 촬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문화유산올림 안여중 대표와 인연이 되어 바위구멍(성혈)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기록한 것을 ‘대전문화유산 답사기-성혈편(2013년 11월, 대양문화사)’이란 제목으로 2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작년에 ‘대전문화유산 답사기-장승과 선돌편’을 출판하려고 했지만, 성혈(구멍)을 실측해 도면화 작업을 하다 보니 일 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출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전문화유산 답사기-장승과 선돌편과 ‘대전시내 성혈 보고서’ 2 권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읍내동 장승제가 열리기를

대전 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장승제에 관심을 두고 기록하다가 올해 초 대덕구 안에서 진행된 정월대보름 축제 현장 기록을 위해 거의 찾아다녔습니다.

그동안 약 20여 년 넘게 ‘읍내동 장승’은 책 속에만 있는 추억의 장승이 될 뻔했습니다. 저 역시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재를 찾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대가로 ‘읍내동 장승’ 1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그 후 반대편에 있던 장승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전의 위치와 구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전시에 장승제 하나가 추가되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읍내동 장승제’를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대전 정월대보름축제

부수골 느티나무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광섭



정월대보름축제인 ‘부수골 느티나무제’ 참석했어요. 부수골은 대덕구 황오동 산 27-11번지인데요. 해마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올해 대덕구에서 실시하는 대보름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20일은 대덕문화원과 금강 변 쥐불놀이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21일에는 ‘부수동 부수골 거리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성지산성을 몇 차례 답사한 적이 있지만, 이곳은 생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진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대청호반길 3-2코스인 성지산성 청남대 조망길을 지났습니다. 자전거길 1코스가 연결되는 아름다운 숲 속 흙길입니다. 드디어 행사시작 20분 전에 찬샘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찬샘마을은 자연생태 및 먹을거리 등으로 체험하는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차를 운전하여 성지산성 입구를 지나자 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 뒤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보니 간이천막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덕 느티나무 보호수 아래에서는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형 쇠파이프 2개로 보강된 상태입니다. 느티나무에는 한 문으로 7신위가 쓰인 종이가 금줄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파손된 돌탑에는 과일과 밤, 대추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상에는 시루떡과 양쪽에 양초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7개의 잔과 대추와 밤, 돼지머리, 과일이 있고, 그 앞에 향로와 술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부수골 수목신님의 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초헌, 아헌, 종헌이 행해졌습니다. 관계자의 순서가 끝나고 주민들이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께 복을 축원하며 한지 종이를 태우는 소지(燒紙)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동네 주민인 김홍권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홍권 씨는 인근에서 초코베리 농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는지요?”

“고향인데 몇 년 전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넘어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곳은 예전에 황호동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상에 잔을 7개를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의 물음에 제 순서를 적은 종이를 보여주면 설명해주셨습니다.

“1번 잔은 뱃고개(우성황지신), 2번 잔은 부수골(우탑지신), 3번 잔은 서당골(우괴목지신)입니다. 4번 잔은 양짓말(우괴목지신), 5번 잔은 음짓말(우괴목지신), 6번 잔은 고용골(우할미산신)입니다. 끝으로 7번 잔은 성치산하(우괴목지신)입니다. 1~3번 잔은 왼쪽에, 4~6번 잔은 오른쪽에, 7번 잔은 중앙에 잔을 놓습니다.”

김홍권 씨는 ‘황오동’이 아니라 ‘부수동’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변상은 틀림없이 황오동에 있습니다. 다만, 바로 옆 부수동과 경계지점입니다. 그럼 ‘황오동 느티나무제’로 하여야 하는데, 왜 ‘부수동 느티나무제’라 할까요? 또한, ‘부수동 축제’를 마을 분들은 ‘부수동 축제’로 기록하고 있네요. 동네관계자와 민속학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모여 명칭을 통일했으면 합니다.

부수동은 연꽃이 물에 뜨는 형상이어서 명당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마을은 모두 대청호에 잠겼지만, 보호수만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주변은 최근에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담이 이른 시일 안에 보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느티나무는 약 330년 된 나무로 2004년 1월 19일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 부부는 인사를 드리고 성치산성으로 향했습니다. 느티나무에서 성치산성 입구까지는 약 1km 정도 거리입니다. 황호동 쪽으로 조금 더 가면 끝 부분에서 청남대가 보인다는 것을 늦게 알아서 후회했습니다.

손으로 노는 노자들 손놀이 협동조합을 아세요?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이시형



2015 사회적기업육성사업팀 손놀이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이 건물 2층의 공간이 손놀이의 작업실인데요. 많은 분이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작업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문을 열면 한눈에 들어오는 작업실 공간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많은 분이 꿈을 이루어가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저도 가슴이 설렙니다.

패브릭 인형부터 벽에는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합니다. 누구나 한번 보면 배워서 직접 만들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재봉틀을 활용한 홈패션,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생활 속 소품을 제작하여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면 재료들은 조금 있으면 예쁜 모습으로 변신해서 주인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재봉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방해되지 않을까 사진 한 장 살짝 담아봅니다. 역시 뭔가 만들어 내는 숨씨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니 아기자기한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저도 손재주가 있다고 주변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재봉을 배워볼까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문화센터 교육을 하던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하며 만든 손놀이 협동조합은 다문화 소외계층,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민희 대표에게 손놀이 협동조합을 만든 계기와 소셜 미션에 관해 묻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외계층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봉 기술을 교육을 통해 나눠주고, 기술을 배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일하고 성장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시작하는 소셜 미션을 처음에 정하고 시작한 것을 미션으로 수행하며 변치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손놀이 협동조합은 현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재봉틀 무료교육을 운영하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배워서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손놀이 문을 똑똑 두드려보아도 좋겠습니다.

대전 중구 용두동 33-9번지, 042-254-3644, khd700527@naver.com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수상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철수의 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전은영

facebook

이경숙님이 사진첩에
새로운 사진 7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철수의 난]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수상
6월 22일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전대표로 참가작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철수의 난]
대상 & 연출상 수상~!!
함께 한 모든 분들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 또한 만만치 않네요.
서울 공연, 카자흐스탄 공연, 대전 공연~^^
모두 모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대전 연극 파이팅~!!!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파이팅~!!!



좋아요 108명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 대전 대표로
출전한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이 대상
(대통령상)과 연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
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한민국연
극제는 33년의 전국연극제 전통을 이어
받아 새롭게 태어난 첫 대회로 대전 대표
팀의 수상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영예
의 대상을 받은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
합의 〈철수의 난〉은 2015 대전창작희곡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윤미현 작
가의 작품인데요, 극작 및 연출가인 김상
열 대전대학교 교수가 연출을 맡아 비합
리적이고 부조리적인 우리 삶을 견뎌내
는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풀어냈습
니다.

〈철수의 난〉은 할아버지役に 전은영,
할머니役に 지선경, 철수역 김성우, 철



근역 배다솜, 철수 아빠역 이시우, 고모·토끼역 남명옥, 감씨역 조중석, 우씨
역 정아더, 그릇가게 아줌마역 손정은, 동네 형님역 성용수, 경찰·토끼역 오혜
영, 탈영병역 임황건 등 대전을 기반으로 꾸준히 활동해 온 배우들이 각각의 독특
하고 차별화된 캐릭터를 살리는 열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열린 대전연극제(대한민국연극제 대전예선)에서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의 〈철수의 난〉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 남·여연기상(지선경·정
아더), 신인연기상(김성우), 무대예술상(윤진영), 연출상(김상열) 등을 휩쓴 바 있
습니다.

조중석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이사장은 “창단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전연극
제에 출전해 대상을 받았고, 대전 대표로 출전한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도 대
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대전 연극에 많은 관심을 가져
대전연극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좋은 무
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우리 대전연극의 우수함을 널리 알린 소중한 의미와 더불어, 우리
지역 대전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인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대전연극, 대전공연예술을 기대하며,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의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및 연출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하
드립니다.

대전시민이 함께 연주한 ‘대전의 찬가’

대전시청역 피아노계단 시민합동연주 현장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주영선



facebook

주영선님이 새 동영상을 추가했습니다. ▾
1월 22일

#대전시청역 #건강계단 #피아노계단
지금 연주회 녹음하고 있어요~^^
재밋네요!



조회 1,141회

대전시청역 2번 출구 건강계단, 피아노계단 가보았나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대전시청역 2번 출구에는 도레미 소리가 나는 피아노 계단이 있습니다. 올해 1월 23일에는 미리 신청한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계단 피아노계단에서 ‘대전의 찬가’를 연주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 어린이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즐겁게 웃으며 피아노계단 연주에 참여하였는데요. 바깥 날씨는 차가워도 피아노계단 시민연주에 참여하는 열정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대전의 찬가’가 처음 작곡된 곡인데도 건강계단 피아노계단 연주에 적절한 속도의 리듬에 귀에 착 달라붙는 곡이어서 모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악보지만 곡이 쉽게 들어오고 음이 금방 외워져서 나중에는 ‘대전의 찬가’ 악보를 보지 않고도 훌륭히 연주해내어 한 시간 만에 피아노계단 연주연습과 촬영까지 거뜬하게 마쳤답니다.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에는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자신의 순서를 건너뛰기도 하며 약간은 엉성하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실수할 때마다 서로 웃으며 즐겁게 연주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계단 피아노계단은 보행자가 다닐 때마다 이용자 수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연주 연습을 하며 보니 당일 그 시각까지 1일 이용자 수가 400명대였는데, 연



주를 마칠 때는 600명이 넘었습니다. 이용자 수 한 명당 100원씩 기부된다고 하니, 피아노계단 연주 당일에 즐겁게 참여한 시민들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원이 넘게 기부하였네요.

작은 금액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섭섭하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인 금액이고 앞으로 건강계단 피아노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한 발걸음으로 더욱 쑥쑥 커 나갈 테니 말입니다!

“도-도미 솔솔솔솔 도도시라솔—— 도-시라 솔솔솔솔 리솔파미레~ ♪ ♪”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높은 파에 갑자기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장 구경만 하러 갔던 저도 갑자기 ‘높은 파, 높은 미’로 참여하게 되었지요. 피아노계단 연주곡인 ‘대전의 찬가’ 뒷부분의 하이라이트를 담당했다고 할까요? 화면에 나오려고 생각했다면 분장도 좀 하고 갔을 텐데요.

이렇게 시민이 참여하여 만든 대전시청역 피아노계단 ‘대전의 찬가’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끝부분의 ‘높은 파-미레도—— ♪ ♪’에서 파-미가 바로 제가 ‘연주’한 부분입니다~! 동영상에 보면 제일 윗 계단에서 참여하였죠. 은빛 머리칼이 아름다운 50대 임금연 씨는 유성에서 온 참가자인데 참여한 소감을 멋지게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대전시청역 피아노계단 연주에 참여하여, 즐거운 체험도 하고 기부도 하고 마음과 몸의 건강까지 챙겼으니 이거 도대체 일석 몇조나 되는 건가요?

여러분도 대전도시철도 1호선 대전시청역 2번 출구의 건강계단 피아노계단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연주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어린이들이 방학 체험학습으로 가족과 참여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긴다면 그런 좋은 추억이 또 있을까요? 단, 어린이는 계단에서 위험하지 않게 꼭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월은 가도 즐거운 추억은 영원하답니다.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은 2016년이 되었길 바라고, 2017년에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을합창단의 즐거운 연습 현장을 찾아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주영선



대전시는 전국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마을합창단 활동을 지원하여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합창단을 구성하면 대전문화재단 시민문화지원팀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는 물론 소정의 합창단 운영비도 지원하며 마을 합창단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마을합창단이 현재 대전에 51개가 있고요. 구별로 보면, 동구 9개, 중구 11개, 서구 17개, 유성구 8개, 그리고 대덕구에 6개의 마을합창단이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린 대전마을합창축제가 열렸는데요. 이번 대전마을합창축제에는 49개의 합창단이 참여하여 5일 동안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진 합창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합창단원의 수를 모두 합하면 무려 1,500명 정도나 되는 대규모의 축제였습니다. 매일 10개 팀 정도 무대에 올라 당일 팀 별로 시상을 하고, 대전마을합창축제 마지막 날 종합 시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경연대회가 아니고 축제이기 때문에 상 이름도 참 재미있습니다.

종합 시상은 아름다운 하모니상(시장상), 화목한 이웃상(시의장상)이 각 1팀씩, 좋아좋아 화음상(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상), 하하호호 스마일상(음악협회장상), 톡톡 튀는 기발상(합창총연합회대전지회장상)은 매일 여러 팀에 수여했다고 합니다.

상의 이름이 참 재미있죠? 금상, 은상과 같은 이름으로 순위를 따지는 상보다 훨씬 축제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사실 마을합창이 상이 중요하겠습니까? 합창하면서 저절로 마음이 즐겁고 신체가 건강해지는 합창단원들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것과 다름없지요.

주변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마을합창단의 연습장을 몇 곳 찾아보았습니다.





대전마을합창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익힌 화음을 가다듬으며 틈마다 선곡에 어울리는 율동을 맞추는 장면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둔산2동 둔지미합창단은 둔산2동 주민센터의 넓은 다목적 공간에서 즐거운 선곡으로 재미있게 연습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화기애애하였습니다. 만년동 산유화합창단은 종교시설의 장소에서 연습하는데, 단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익히려고 스스로 박자까지 맞춰가며 진지하게 연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함과 함께 웃음보도 간간이 터지는 즐거운 연습시간이었지요.

괴정동 지치울합창단은 괴정동 주민센터 2층에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지치울’은 괴정동 지역의 옛 지명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지치울합창단은 마을합창단의 취지에 100% 어울리는 합창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른 연령층에 남녀가 적당히 섞인 보기 드문 혼성 합창이라는 점이 그 첫째 이유고, 지휘자나 단원들이나 연습하는 내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동작을 맞추면서도 단원 모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시질 않아서 참관하는 사람도 덩달아 즐거움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월평2동 레인보우합창단은 연습 현장도 즐겁지만, 단원들이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다는 표정을 만면에 담고 있어서 보는 이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합창 중간에 반주자의 멋진 재즈풍 간주도 몸이 저절로 리듬을 타게 하였지요.

모든 합창단은 연습을 시작할 때 먼저 발성 연습을 합니다. 호흡을 길게 하며 소리를 내면 배에 힘이 들어가며 몸은 리듬을 탑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좋은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면 등도 깨끗하게 펴지며 자세도 좋아집니다. 또한, 합창단원으로서 예술문화를 직접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으며, 무대에 서서 노래한다는 설렘과 가슴 떨리는 긴장감까지 모두 생활에 강렬한 활력소가 되거든요.

연습하는 장면을 참관하면서 왜 대전시에서 마을합창단 활동을 권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는 시대에 이만큼 가성비 좋은 투자가 또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는 곳에서 마을합창단에 참여해보세요! 아직 마을합창단을 구성하기 전이라면 적극적으로 합창단도 만들어 보시고요. 마을합창단은 주 1회, 2시간 씩 연습하고, 지휘자와 반주자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마을합창단 문의 대전문화재단 시민문화지원팀 042-480-1074

현악기 장인을 만나다

마에스트로 구자홍 미니인터뷰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천상인



아인슈타인과 셜록 홈즈. 이 두 사람의 취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이란 악기는 작은데도 인간의 희로애락을 정말 잘 표현하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유일무이하게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마에스트로 구자홍 씨의 현악기 전시회가 타임월드갤러리에서 있다가에 부랴부랴 찾아 갔습니다.

구자홍 씨가 운영하는 비노 클래식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마다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직접 가서 바이올린의 앞태, 옆태, 뒷태를 보고 있으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도 악기 하나씩은 배운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으로도 악기수업을 많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장제 악기로 바이올린 수업을 듣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바이올린의 진짜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전시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비노 클래식에서는 악기제작 수리 공연 등 다양한 예술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었다가 이렇게 직접 현악기를 제작하고 칠하고 다른 외국 악기들을 보면서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모습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날 마에스트로 구자홍 씨를 잠깐 인터뷰했습니다.



Q. 현악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A. 어렸을 때부터 비올라를 연주했습니다. 비올라를 연주하던 도중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도중에 네 손가락으로 현악기를 만드는 장인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픈 동생을 위해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악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현악기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Q. 현악기 종류는 다 만드나요?

A.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을 만듭니다. 아이들 손크기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맞춰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초급 6개월, 중급 9개월, 고급 12개월 과정이 있고요. 바이올린을 모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 수업료를 내면 아이들의 사이즈에 맞게 바이올린을 무료로 바꾸어 주는 제작 과정도 있습니다.

Q. 대전에 현악기를 만드는 비노 클래식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그냥 이유 없이 대전이 좋았습니다. 제가 공주 사람이기도 하고요. 복잡하고 사람 많은 서울보다는 대전이 더 좋았습니다. 대전이라면 아무도 현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대전 예술가와 충청지역 예술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악기 전시회를 열게 된 취지가 궁금합니다.

A. 현악기를 일반인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바이올린을 가까이 보고 어떻게 소리 나지도 알게 되거든요. 바이올린이란 악기가 과학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소리의 공명이라든지 활 각도, 나무 울림 같은 것들이죠. 일반 대중이, 특히 아이들이 현악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악기 콘텐츠로 대전 시민들에게 어필할 생각입니다.

Q. 앞으로 계획은?

A. 아이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높이기 위해 현악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전·충청권 예술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그들에게 지속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대중과 예술인들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멋진 악기를 만들고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다 현악기를 즐길 수 있게 하려고요.

이번 전시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공구와 바이올린을 이루는 각각의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외국 악기들과 구자홍 씨가 만든 일련번호대로 악기를 구경하고 감상 할 수 있었습니다. 마에스트로 구자홍 씨의 현악기 전시회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늦은 방문으로 오래 못 봐서 아쉬울 정도 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현악기 전시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현악기 박물관이 생겨서 이런 악기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이런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대전만의 특별한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대전시청 전시실이나 대전예술의전당, 각 구청 전시관에서도 보고 싶네요. 학교나 박물관에서도 이런 현악기 전시회가 열린다면 아이들이 현악기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